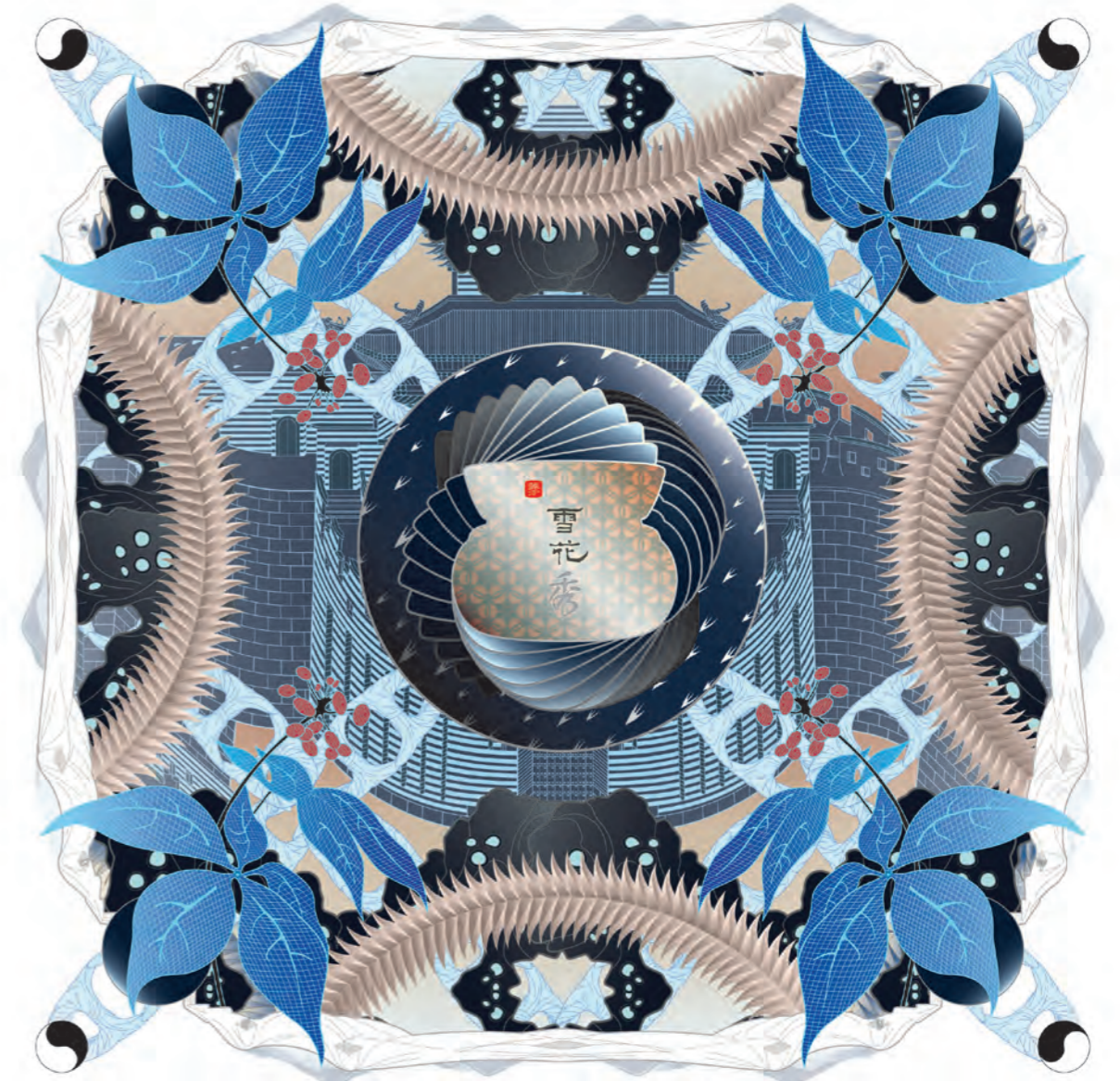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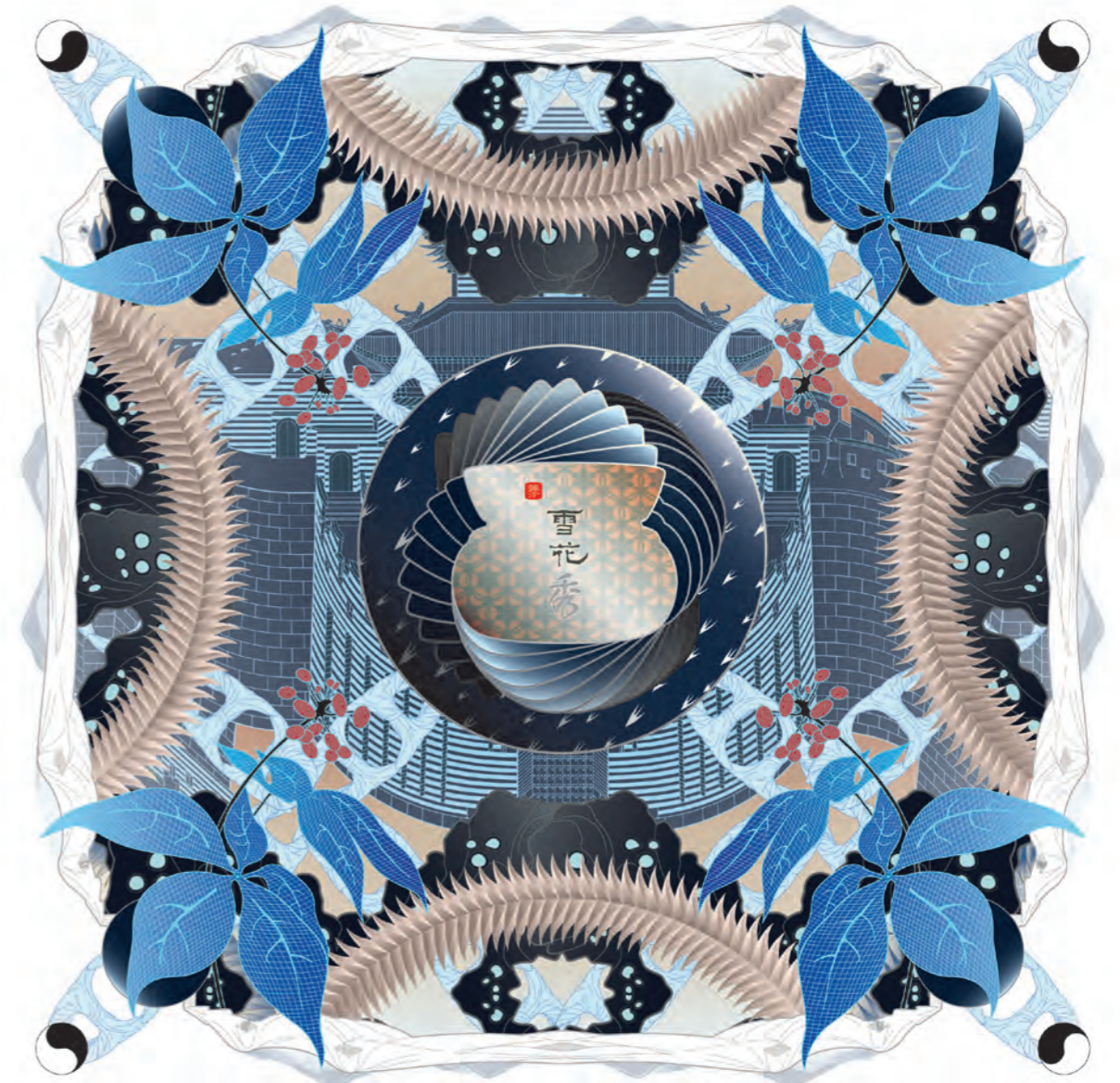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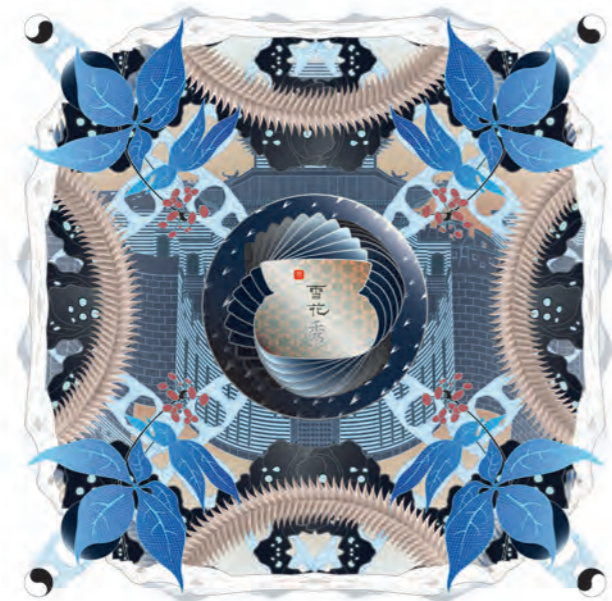


Sulwhasoo



Sulwhasoo

10th Anniversary
Sulwhasoo



Sulwhasoo 10th Anniversary
 캐스퍼강 Casper Kang, 2014

韓

雪花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얻는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의 기운이 부족해져, 피부의 윤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 속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귀한 원료들의 조화로 탄생한 자음단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까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겉으로만 빛나는 윤기를 넘어 피부 깊이 차오르는 윤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Cover Story

설화수 매거진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작품 속에 녹아내고 있는 현대 작가 캐스퍼 강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캐스퍼 강은 자음생크림과 매화문 꽃살, 인삼 등 설화수를 대표하는 요소와 그가 평소 작업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적 요소를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한 장면 속에 조화롭게 그려내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 우리 전통 건축물, 자음생크림이 배치되어 자연과 인간, 만물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자연의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캐스퍼 강은 손으로 스케치하거나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실크스크린으로 세밀한 선을 표현한 뒤 세필로 여백에 색을 입히는 섬세한 작업 방식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색감과 형태, 질감, 구성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S

Sulwhasoo Magazine has collaborated with Casper Kang, a rising Korean artist, in commemorating the magazine's 10th anniversary.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10th Anniversary Edition harmoniz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with its traditional elements of plum blossoms and ginseng in one scene that is beyond reality and virtuality. This signifies that men are inseparable from nature and the Universe, and conveys the philosophy of the Sulwhasoo brand, which pursues beauty with natural ingredients to achieve harmony between nature and people, and incorporates modern science into the wisdom of olden times to realize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Casper Kang employs the delicate method of sketching with his hands, using a silk screen to express detailed lines, and coloring negative spaces with fine strokes. In so doing, he reinterprets, in a modern way, traditional Korean elements and expresses them in new colors, shapes, textures, and compositions. Through this collaboration with Sulwhasoo Magazine, he innovatively interpreted Sulwhasoo's brand philosophy, i.e., its pursuit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in his own style.

Cover Story

설화수 매거진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작품 속에 녹아내고 있는 현대 작가 캐스퍼 강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캐스퍼 강은 자음생크림과 매화문 꽃살, 인삼 등 설화수를 대표하는 요소와 그가 평소 작업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적 요소를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한 장면 속에 조화롭게 그려내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 우리 전통 건축물, 자음생크림이 배치되어 자연과 인간, 만물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자연의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캐스퍼 강은 손으로 스케치하거나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실크스크린으로 세밀한 선을 표현한 뒤 세필로 여백에 색을 입히는 섬세한 작업 방식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색감과 형태, 질감, 구성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S

Sulwhasoo Magazine has collaborated with Casper Kang, a rising Korean artist, in commemorating the magazine's 10th anniversary.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10th Anniversary Edition harmoniz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with its traditional elements of plum blossoms and ginseng in one scene that is beyond reality and virtuality. This signifies that men are inseparable from nature and the Universe, and conveys the philosophy of the Sulwhasoo brand, which pursues beauty with natural ingredients to achieve harmony between nature and people, and incorporates modern science into the wisdom of olden times to realize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Casper Kang employs the delicate method of sketching with his hands, using a silk screen to express detailed lines, and coloring negative spaces with fine strokes. In so doing, he reinterprets, in a modern way, traditional Korean elements and expresses them in new colors, shapes, textures, and compositions. Through this collaboration with Sulwhasoo Magazine, he innovatively interpreted Sulwhasoo's brand philosophy, i.e., its pursuit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in his own style.



설화수필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	04
설화수 헤리티지	설화수, 시간과 열정의 기록	10
설화문화전을 되돌아보다	설화문화전, 예술과 브랜드의 만남	20
아트를 만나다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설화수의 협업	26
설화수의 사계	사계와 어우러지다	36
설화수 스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다	44
전통과 현대의 조우	東西古수의 명품 문화가 만나다	52
설화보감	자연의 진가가 아름다움을 피우니	60
VIP 인터뷰	그녀들의 삶에서 조화를 엿보다	66
설화수 베스트 10	설화수를 대표하는 제품 10가지	74
10주년 표지 이야기	설화수 매거진 10주년을 돌아보며	80
베스트 컬럼	과거로의 아름다운 초대	84
독자 선물		88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특별호

Sulwhasoo

May/June 2014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매거진입니다.

Sulwhasoo, which conveys the Asian philosophy and Korean wisdom, has combined the aesthetic appeal of both harmony and balance.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10th Anniversary Edition harmoniz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with its traditional elements of plum blossoms and ginseng in one scene that is beyond reality and virtuality.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기념호 표지는 현대미술 작가 캐스퍼 강이 자연과 전통을 배경으로 '자음생크림'과 매화문 꽃살, 인삼 등 설화수의 전통적 요소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한 장면속에 조화롭게 담아냈다.

●발행인·사경배 ●편집인·유재현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문선영 02)879-3541 ●편집·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미경, 윤미영 디자인·조윤형, 차영화 ●발행일·2014년 5월 1일(통권 제62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 Photoengraving lng Process ●인쇄 (주)태산인택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글 장석주(시인, 수필가) 그림 정가애(일러스트레이터) 에디터 윤미영

예부터 동양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식을 취해왔다. 서양이 자연을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만 받아들인 반면 동양에서는 나와 자연은 그 본성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자연을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원리에서 삶을 꾸려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의 바탕을 끈끈하게 이어오면서 물아일체와 더불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인합일의 철학이 탄생한 것이다.

— 산과 인간 —

산은 천지간에서 크고 우뚝하게 솟은 것이다. 그 넓고 깊은 품에서 못 초목과 짐승 그리고 인간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산은 마을을 품고 마을에 사는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산에 기대어 은신하고 그것의 일부로 살아간다. 사람과 산은 서로 잇대어 있고,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흥망을 함께 하는 것이다. 산은 높은 것으로서 사람은 그 산의 높음을 따르고 본받고자 한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산과 가까이 살면서 사람은 그 성정이 어질어진다.

Mountain and Human

Mountains stand high between land and sky. Plants, animals, and Humans live together on and beneath their wide and deep heart. Mountains embrace villages and the people who live therein. People hide themselves in mountains and live as parts of them. People and mountains are interrelated through their exchange of spirits, and so rise and fall together. Mountains are high, and people hope to reach their heights. Kind people are fond of mountains. People become kind to nature as they live near mountains.



물은 솟아올라 마르지 않고 흐른다. 아슬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골고루 퍼져 들과 숲의 생명들에 생기를 더하고 생명을 있게 해 준다. 만물이 물의 덕을 고루 받으며 그 생명을 이어가기에 물은 사람의 도나 덕의 근본이 된다. 물은 약하고 부드러우면서 약함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단단한 것을 꺾는다. 물은 혼탁해졌을 때도 그냥 두면 스스로 맑고 고요해진다. 물이 스스로 맑고 고요해지는 것은 자연의 본디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편으로도 편중되지 않는다. 물은 고루 퍼지며 만물의 어미 노릇을 기꺼워한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물의 성질이 가장 좋은 덕과 닮아 있다.

Water and Human

Water springs out and flows without drying. It flows from a higher place to a lower place day and night. It spreads out evenly to give vitality to living things in fields and forests, and to help them survive. As the universe survives due to water, people consider water the fundamental truth or virtue. Water is weak and gentle, but it defeats the strong and bends the hard. Water is clear and calm even when it is turbid. Water becomes clear and calm by itself because it returns to the order of nature. Water is not biased toward any side. Water spreads evenly to all directions and enjoys being the mother of the universe. The wise are fond of water, and the character of water resembles the greatest virtue.





—
흙과 인간
—

언 땅이 풀리고 새싹들이 땅거죽을 뚫고 올라온다. 흙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데 불가결한 토대다. 흙이 품은 씨앗들은 움이 터서 자라고, 초목들은 비옥한 토양에서 물과 영양분을 취해 자라나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 땅 위를 걸거나 달리는 사람과 동물은 땅이 길러내는 곡식과 과일을 취해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다. 흙은 우리 생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준다. 흙은 어머니와 같이 못 생명들을 먹이고 기르는 존재다. 사람은 흙에서 나고 흙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이 다 흙 위에서 나고 번성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온 것들을 취하며 살과 피를 만들고, 흙과 함께 살아가니, 흙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어머니가 아닌가! 5

Earth and Hu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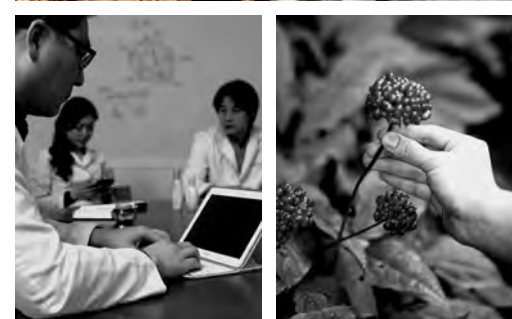
Frozen soil thaws and sprouts come out through the surface of the soil. Earth is the essential foundation of the life of plants and animals. The seeds nurtured by the earth sprout and absorb water and nutrition from the fertile soil to grow and bear flowers and fruits. The people and animals that walk or run on the land feed on the crops and fruits grown on the land to be nourished for survival. The earth gives us everything we need to live. The earth is the mother that feeds and nurtures lives. People are born from the earth, live on earth, and return to the earth after death. Everything in the world also grows and flourishes on earth to return to the earth in the end. As we all come from the earth, our flesh and blood come from the things of earth, and we live with the earth, isn't earth the origin and mother of life!



Sulwhasoo Heritage

설화수,
시간과 열정의
기록

에디터 부계영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점(02-541-6480), 루밍(02-6408-6700),
김서윤 작가(010-5761-7262), 안대훈 작가(010-8958-1913)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과 외면의
균형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설화수는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약용식물과 첨단 피부과학의 접목을
통해,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 홀리스틱 뷰티를
표방하는 설화수 브랜드 정체성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Story of Sulwhasoo

아시아의 지혜로 탄생한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년의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약용식물을 현대 피부 과학으로 재창조하여 겉으로 드러난 문제 뿐 아니라 근본 원인까지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이는 곧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전통의학과 식물 원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일궈낸 설화수의 탄생 철학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시아의 약용식물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32년, 동백나무 열매의 기름을 짜내어 동백 머릿기름을 만들던 창업자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왔다. 이는 인삼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1966년 최초의 인삼 화장품인 'ABC 인삼크림'을, 1987년에는 인삼에 대한 연구가 한방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설화수의 전신인 '설화'를 탄생시켰다.

설화수는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진귀한 원료와 남다른 처방으로 최적의 피부효능을 구현하는 한국의 대표 뷰티브랜드이다.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두루 다스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다른 철학을 표방해왔다. 설화수의 피부효능의 근간이 되는 원료인 '자음단'과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전역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까지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skin problems and their underlying causes. By recreating the legendary plants containing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skin science of today presents holistic beauty that achieves balance inside and out. This is clearly reflected in the philosophy behind the birth of Sulwhasoo, which was founded on the faith of AmorePacific's Founder, Seo Seong-hwan, in Korean herbal medicine and plant-origin ingredients. His interests in the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of Asia has been inspired by his mother, who started making camellia hair oil by extracting the fruits of camellia trees in 1932. The first ginseng cosmetic product, 'ABC Ginseng Cream', was developed in 1966. Researches on ginseng in 1987 were followed by studies on Korean herbal medicines that later created 'Sulwha', the predecessor of Sulwhasoo.

Since its establishment, Sulwhasoo has been Korea's representative beauty company. With 'Jaumdan', which is the basis of Sulwhasoo's skin effects, as well as 'ginseng' and the cutting-edge skin science, 'bio-convers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been spreading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across the world, beyond Korea.

Jaumdan

5가지 원료의 정수, 자음단

아모레퍼시픽은 1987년, 본초강목, 신농본초경 등의 고전을 두루 조사해 피부에 이로운 500여종의 물질을 찾아냈고, 이후 효능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랜 임상실험을 거쳐 2만여 가지 한방성분 중에서 3000가지로 추려내고 이후 최종적으로 30가지를 선택, 이를 다시 오행의 기운과 성질에 맞게 분류해 5종으로 엄선했다. 작약, 연자육, 옥죽, 백합, 지황. 바로 이 5가지 원료로 만든 '자음단'에는 설화수만의 남다른 기술과 효능이 집약되어 있다. 자음단은 음이 부족해 생기는 여성의 피부 노화를 해결하기 위해 음양의 조화를 맞춰 최적의 피부 균형 상태를 이끌어내는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원료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자생, 탄력, 투명, 영양, 생기 등 각각의 효능에도 도움을 주어, 조화와 균형을 통한 아름다움, 홀리스틱 뷰티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견고한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자음단의 5가지 원료들은 각각의 성분이 만나 최고의 효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많은 실험을 거치며 한방성분을 연구한 결과, 18시간을 달일 때 최상의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자음단은 설화수만의 피부 효능을 위한 5가지 고귀한 원료의 정수로서 설화수의 근간을 이룬다.

In 1987, AmorePacific studied a number of classics, including Bencao Gangmu (Compendium of Materia Medica) and Shennong Bencao Jing(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in order to identify approximately 500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for skincar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effects of Korean herbal medicine in scientific terms, it took years of clinical research to sort out approximately 3,000 ingredients from roughly 20,000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and select the final 30 ingredients. These ingredi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nergies and attributes of the Five Elements in order to sort out the best ingredients. Jaumdan is Sulwhasoo's singular material that adjusts the balance of yin and yang and brings out the skin's optimal equilibrium to solve women's skin aging, which is brought on by lack of yin energy. It resolves women's problem regarding the signs of aging, which is due to the lack of Yin energy, thereby achieving the most effective skin rejuvenation. It also contributes to the synergistic effects of skin regeneration, resilience, clarity, nutrition, and vit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brand's philosophy regarding the pursuit of holistic beauty through harmony and balance.

After conducting countless experiments to find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ingredients, Sulwhasoo discovered that the five ingredients of Jaumdan produce the ultimate efficacy when brewed for 18 hours.



옥죽



5가지 원료 자음단



지황을 담은 통합 정소영의 식기장



연자육을 담은 스테인리스 스틸 코스터 루밍



작약을 얹은 황동 디저트 플레이트는 김서윤 작가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



백합

Ginseng

인삼, 자연의 고귀한 선물



한국에서 자란 것을 가장 으뜸으로 치는 인삼은 고려시대때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전설적인 약용식물이다.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지닌 인삼을 뿌리, 잎, 줄기, 그리고 진생베리라 불리는 인삼 열매까지, 고농축의 유효 성분만 담은 화장품은 설화수가 유일하다. 잎과 줄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경 재배를, 진생베리를 얻기 위해서는 인삼 꽃이 진 후 양기가 가장 충분한 한여름, 장마가 시작 되기 전인 7월 즈음에 수확한다. 설화수는 재배뿐만 아니라 인삼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전개돼 왔다. 지금까지 인삼과 관련해 수십여개의 국내 및 국제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인삼을 총체 적으로 연구하는 진세노믹스(Ginsenomics™) 기술을 통해 인삼의 놀라운 효능을 밝혀내어 이를 피부에 접목시키는 기술적 혁신도 이뤄냈다.

이러한 설화수의 연구 열정은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1966년 세계 최초로 인삼 화장품인 'ABC 인삼크림'을 출시한 이래, 1973년 세계 최초로 인삼 사포닌을 적용한 '진생삼미'를 출시하였다. 이렇듯 5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설화수의 오랜 인삼연구는 오늘날 설화수의 대표 제품인 자음생크림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The world's best Korean ginseng is a legendary medicinal plant that has been garnering worldwide popularity since th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Sulwhasoo is the only cosmetic brand that captures the active ingredients of ginseng in a high concentration using all parts of ginseng, such as the roots, leaves, stems, and berries. Sulwhasoo has been growing ginseng in aquaculture for its leaves and stems, and harvests it around July after the flowers have wilted before entering the rainy season for the berries, as this is when the Yang energy reaches its peak. Sulwhasoo is also dedicated in studying the efficacies of ginseng. It has several dozen international patents related to ginseng, and it has adopted the Ginsenomics™ technology for the discovery of the amazing effects of ginseng in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skincare.

Sulwhasoo's passion for research started with Seo Seong-hwan, the founder of Amore Pacific, who spent his childhood in Gaeseong, a region famous for ginseng. Since its release of the world's first ginseng cosmetic product, 'ABC Ginseng Cream', in 1966, the company followed up with 'Ginseng Sammi', the first to utilize ginseng saponin, in 1973. Studies on ginseng for 50 years have been carried over to Sulwhasoo's representative product toda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Bioconversion

바이오컨버전을 통한 피부과학

‘먹어서 좋은 인삼을 피부에 발라도 좋을까?’ 설화수의 인삼연구는 이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인삼의 유효한 성분들을 피부 속으로 전달하여 최적의 효능을 발현하기 위한 설화수의 피부과학의 길이 본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인삼 사포닌 중에서도 실제 효능을 내는 활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추출이 어려울 만큼 극소량 존재한다. 인삼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소화작용을 통해 사포닌 성분이 활성 물질로 전환되어 몸에 흡수되지만, 피부에 인삼 그대로를 바를 경우 거의 흡수되지 못한다. 소화를 통한 체내 효소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삼 속 유효한 사포닌 성분이 피부 속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설화수의 피부과학이 바로 ‘바이오컨버전 기술’이다. 설화수는 ‘진세노사이드 하이드롤라아제 효소’를 발굴하여, 인삼 사포닌을 유효한 활성 물질로 전환시키는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인삼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하게 되었다. 첨단기술과 집묵한 설화수의 남다른 처방을 통해, 인삼의 고귀한 가치를 피부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이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유의미한 일인가. S

Sulwhasoo’s research on ginseng began with the question, “Why not apply ginseng to the skin instead of consuming it?” It was thus that the path of Sulwhasoo’s skin science opened in earnest to achieve the expression of optimal effects by delivering ginseng’s effective components.

The amount of the active substance in ginseng saponin, whose efficacy has been proven, is so small that it is difficult to extract. When ginseng is consumed, its saponin component is transformed to an active substance through our body’s digestive function. When such active substance is directly applied to the skin, however, it is rarely absorbed. Since the enzymatic function through digestion does not occur, the effective saponin component in ginseng is not delivered into the skin.

To overcome such limitation, Sulwhasoo developed its own skin science, ‘bio-convers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 ‘Ginsenoside hydrolase’ can be extracted and the effective components of ginseng saponin, transformed. At last, ginseng’s remarkable effects can be delivered into the skin as they are. How meaningful it is for many people to enjoy ginseng’s magnificent value on their skin through Sulwhasoo’s differentiated prescription that is combined with advanced technology.



Sulwha Cultural Exhibition

설화문화전, 예술과 브랜드의 만남

글 이진수(미술비평가, 전시기획자) 에디터 윤미영

설화수는 전통과 현대예술의 조화로운 예술적 시도를 <설화문화전>을 통해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전통공예와 현대미술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교류의 전시로 발전한 <설화문화전>을 되돌아보았다.

곡선의 직설적이지 않은 은유, 수평적 구조가 주는 평화로운 감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의 의미를 찾고자 한 지혜로운 관조의 여운 등.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움의 미를 가장 한국적인 미로 여기고 구현해온 우리의 전통적인 미적 감수성이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커다란 전환이 온 때는 '모더니즘의 개화(開花)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빛을 반사하는 가벼운 반짝거림보다는 빛을 흡수하는 심오한 그늘 짐이 높은 가치로 예찬되었던 그 시절과, 오래된 것들에 스민 시간의 얼룩이 내는 광채를 사랑하는 그 공간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주도해 나갔다면 우리들 삶의 모습은 어찌면 지금과 확연히 다르게 변했을지도 모른다.

When were our precious original aesthetic norms destroyed so exhaustively? The indirect metaphor of curved lines, the peaceful sense of horizontal structures, and the wise contemplation to find the meaning of each moment in the flow of time: all these were the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aesthetic sentimentality that value and create the most natural beauty.

In the history of Korea, there was a big transition in the view of beauty at the time of awakening of modernism. Korean customs and aesthetic languages were destroyed almost completely throug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ne of the most regrettable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s the loss of traditional oriental aesthetics due to the paradigm shift. If the paradigm of the time when the value of a profound shade for absorbing light surpassed the value of a fleeting sparkle that reflected light, and the space that loved the stain of time glowing on aged things dominated the world, our lives must have been complete-



2009년 설화문화전 <백미白美> <나전칠기> 손대현



2009년 설화문화전 <백미白美> <전통의복> 구혜자

프랑스 미학자 텐느(Taine, 1823~1893)는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 위한 세 가지의 주요인을 들었다. 선천적·유전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간의 기질과 신체의 구조인 종족(race), 이러한 종족을 둘러싼 자연적·사회적 환경(milieu), 그리고 어떤 작가 또는 예술 사조의 요인이 되는 지나간 시대의 작가 또는 사조를 가리키는 시대(moment)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텐느의 '환경설'은 발생론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예술의 존재적 현실 그 자체를 설명해 준다. 우리 예술의 근원적인 인종성, 환경성, 시대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특질을 우리 시대의 예술적 현실 구조 위에서 표현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도는 <설화문화전>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문화 메세나를 통해 전통장인과 현대작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후원하겠다'는 것이 설화문화의 정신이다.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색'과, 2007년 '한국의 아름다운 문양'을 주제로 한 전시 <설화문화의 밤>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설화문화전>으로 이어졌다. 장인들의 정신과 제작기술을 재조명하고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통공예와 현대미술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전시를 벌이고 있다. 자연스럽고 소박한 백색의 아름다움을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작가 8인과 현대작가 8인의 앙상블로 펼쳐 보인 전시 <백미(白美)>(2009)를 시작으로, 핸드메이드(手作)로서 완성도가 높은 수작(秀作)을 지

ly different. Jade would have been valued over sparkling crystal, and neat and calm porcelain tableware would have been superior to shiny silver platters and silver utensils. The virtue of 'slow' and 'empty,' in contrast to 'speed' and 'filling,' could have been the way of life.

Sulwhasoo decomposed the old methodology to read cosmetics in the western context. It mixed premium nature-friendly materials to create cosmetics that fit faces and skin types for harmony and balance. Such cosmetics were not for ornamentation, but for the 'regeneration' of natural looks. Sulwhasoo realized the purpose and supported the cause of cosmetics more than did any other brand. The ingredients of its cosmetics are from Korean herbal medicine, but the style and frame of their application were from the western system. Tango from Argentina and Bossa Nova from Brazil have become popular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eir universalism beyond nationalism. They were not limited to the folk instruments and performances of Argentina or Brazil, but actively encouraged the rearrangement of performances with public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base guitar, and drums. It was the true fusion. Sulwhasoo's attempt is meaningful because it applied the concept of fusion to cosmetics.

Taine (1823-1993), a French aesthetician, listed the three major factors required for the birth of an artwork: the race, which is the innate and genetic disposition and physical structure of humankind, the surrounding natural and social milieu around the race, and the moment of an artist or a trend in a past time. Taine's 'theory of environment' explains the existential reality of art itself, which cannot be denied in the theory of evolution.



2010년 설화문화전 <수작-간절한 만남> <백동좌경합> 박문열



2011년 설화문화전 <가설의 정원> <합> 김윤동



2012년 설화문화전 <흙, 숨 쉬다, 옹기>, <옹기> 김창길



2013년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Still Life> 구병준



2013년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흑각궁> 권무석



2013년 설화문화전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 <Idle Direction> 박천욱

향하며, 그 작품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수작(酬酢)을 의도한다는 <수작-간절한 만남>(2010), 전통장인, 소금장인, 현대작가 11인이 참여하여 관람객들이 정원을 산책하듯 거닐며 작품의 소재가 지닌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한 <가설의 정원>(2011), 강진, 제주, 울산 등 각 지역의 옹기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옹기토를 소재로 10여 점의 신작을 완성함으로써 생활용기의 예술성을 재조명한 <흙, 숨 쉬다, 옹기>(2012), 전통공예 장인들이 재현한 우리 궁시의 원형에서부터 그것을 모티브로 구현한 현대작가들 9팀의 개성적인 작품을 통해 활이 지닌 힘의 변주를 보여준 <활력, 시대를 관통하다>(2013)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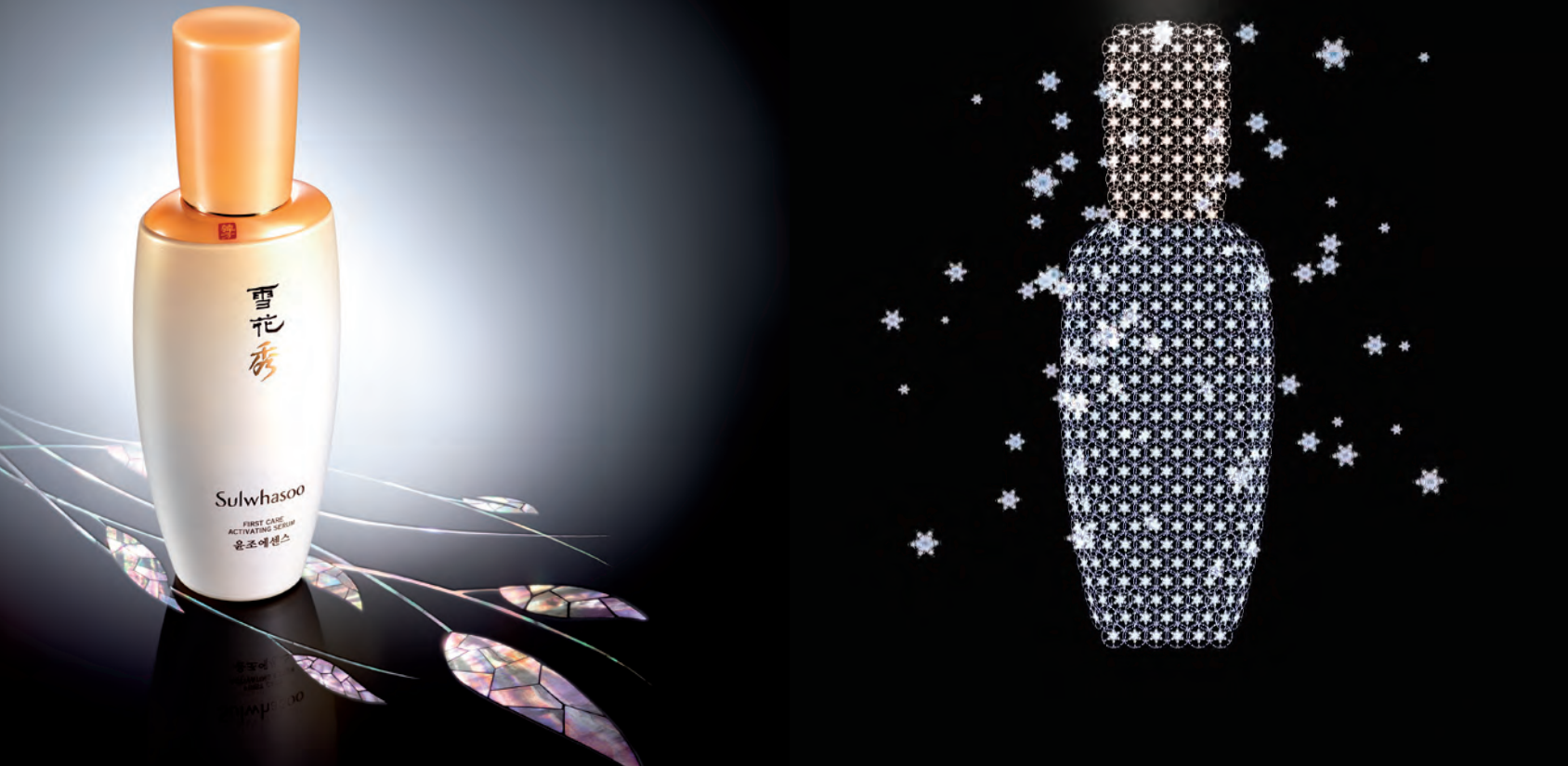
패션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건축가 등 실용적인 예술의 종사자들이 전시 연출을 맡았다는 것은 <설화문화전>이 동시대적이고 현장적인 감각으로 실용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또 하나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닌다. 전통과 현대의 대화, 예술과 일상의 혼성을 통해 근본 있는 예술, 널리 이로움을 주는 예술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새로운 맥락을 열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 장인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예술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민속촌이나 민속박물관의 '박제된 기술로서의 예술'이 아닌, 우리의 삶을 고취시키고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예술로서의 기술'이 지닌 활력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S

The attempt to express the original race, milieu, and moment of Korean art on the contemporary platform has a significant meaning. The spirit of Sulwha Culture is to 'constantly sponsor the work of traditional masters and contemporary artists through the cultural mecenat activities to discover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and restore the value of tradition.'

Sulwha Night of Culture led to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has been held yearly since 2009. It spotlights the spirits and techniques of masters and discovers younger artists to achiev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raditional crafts and contemporary arts.' The fact that Sulwha Cultural Exhibition has been directed by artists and designers activ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ashion designers, interior designers, furniture designers, industrial designers, and architects, shows that the Exhibition is aimed at achieving convergence of practical art and fine art with contemporary and hands-on senses.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seem to yell out, 'Beauty with no use is not true beauty.' It is important to seek the convers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ssential art through the combination of art and life, and the art that benefits us all, in an attempt to explore the new context of traditional Korea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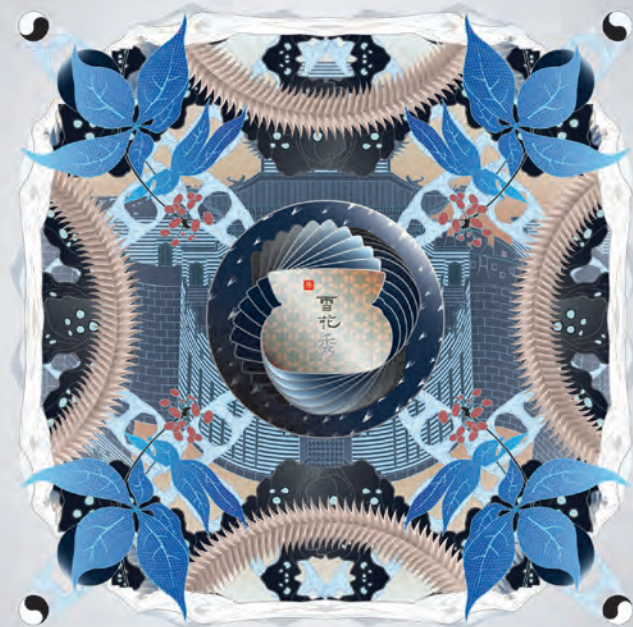
We still do not have an art museum that reads and explores the authenticity and identity of traditional Korean art in contemporary terms. I dream of such a place. Its visitors can experience the essence of Korean aesthetics with all their senses. They will be able to experience moments whe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verlap. What I saw at Sulwha Cultural Exhibition was a part of this dream.



Art Collaboration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설화수의 협업

에디터 성률 사진 박재형(손대현, 캐스퍼 강) 사진 제공 진시영 스튜디오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공예와 현대미술을 꾸준히 지원해온 설화수가 이번엔 2014년, <설화문화전>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전통 장인, 미디어 아티스트, 자개 아티스트가 참여한 설화수 광고 캠페인과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기념 표지를 제작한 현대 화가와와의 협업이다.

설화수는 미(美)에 대한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적 지혜를 담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로서, 그동안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다양한 문화 메세나 활동을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 10회를 맞는 <설화문화전>이 있고, 전통 문화를 토대로 설화수 브랜드 철학의 조화와 균형의 메시지를 서정적인 미감으로 전하는 설화수 매거진이 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예술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지속해온 설화수가 이번에는 2014년 전통 장인과 현대미술 작가가 참여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캠페인화하여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설화수 광고에 등장하는 주요 아이템은 설화수의 베스트셀링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으로, 지난 3월부터 국내외 주요 매체와 설화수 매거진을 통해 직접 접할 수 있다. 한편 설화수는 아티스트가 참여한 아트 콜래보레이션 광고 캠페인과 더불어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기념호를 위한 표지 콜래보레이션도 진행한다. 설화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균형 및 설화수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예술적인 감성을 토대로 설화수가 지향하는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축적해나갈 예정이다.

Sulwhasoo is a brand that conveys the Asian philosophy and Korean wisdom for beauty to deliver the harmonious beauty. It has engaged in various Cultural Mecenat activities to discover the original beauties of Korea and revive the value of tradition in the modern times. The biggest examples are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Sulwhasoo Magazine, which delivers the message of harmony and balance in the philosophy of the brand through lyrical aesthetics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Sulwhasoo has actively worked with the tradition and the contemporary art, and it will earn greater recognition around the world in 2014 by creating a global advertising campaign on the core values of the brand with a traditional artisan and a contemporary artist.

The signature items that appear in the advertisement are Sulwhasoo's most popular First Care Activating Serum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The advertisement has been featured in various publications in Korea and abroad as well as in Sulwhasoo Magazine since March. In addition to the art collaboration advertising campaign in which artists participated, Sulwhasoo has also collaborated with an artist to create the cover for the 10th anniversary issue of Sulwhasoo Magazine.

Sulwhasoo Craftsmanship

전통과 현대가 만난 글로벌 광고 캠페인

설화수의 2014년 광고는 단순히 광고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가 설화수의 제품을 재조명하여 설화수의 가치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는 형태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번 광고는 2014년 새롭게 정립된 설화수의 브랜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조화와 균형'을 일관된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 국내외 고객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공감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설화수의 광고 캠페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용 광고로만 그쳤던 기존 광고와 달리 전 세계 10개국에 동시 전개되는 글로벌 광고로 제작, 소개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중국, 대만, 홍콩 등 설화수가 진출한 전 세계 10개국 주요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설화수는 2014년 광고를 단순히 일회성 광고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설화수 브랜드의 가치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일관된 광고 비주얼과 메시지를 전달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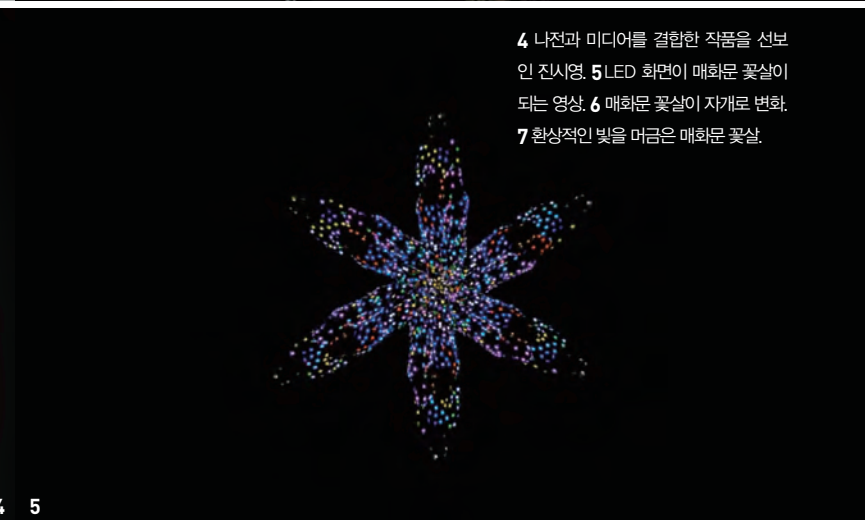
설화수의 이번 광고 캠페인의 주제는 한국 전통 문화를 삼고 있다. 설화수가 우리 전통 문화를 광고 캠페인으로 진행한 이유는 한국적 테마를 모티브로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브랜드의 가치와 효능을 전하기 위함이다.

Sulwhasoo's advertising campaign for 2014 is unlike any other advertising campaign. It will involve artist collaboration where a traditional artisan and a contemporary artist will explore Sulwhasoo's produc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art to create an artwork focusing on the value of Sulwhasoo. The campaign will deliver a consistent message on 'harmony and balance', the core values of Sulwhasoo, based on its new brand story released in 2014. The purpose is to share the values with the customers in Korea and abroad and take a step further from simply advertising the products to allow the customers to sympathize with and experience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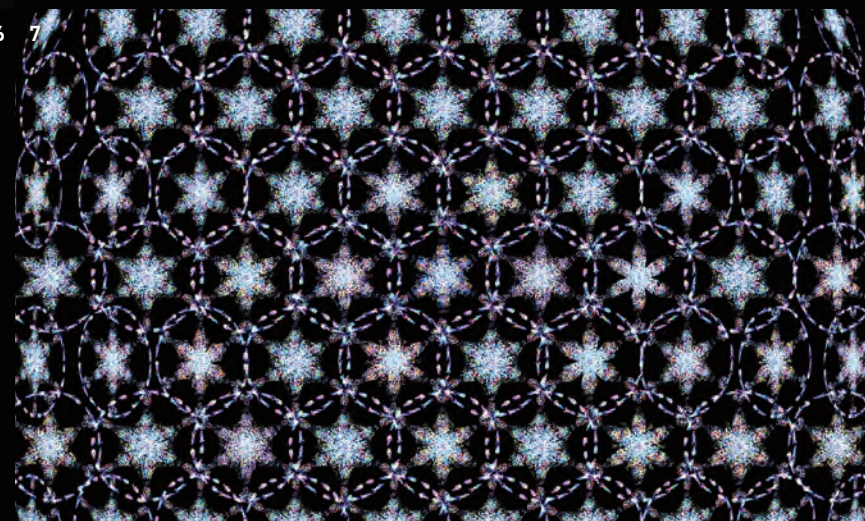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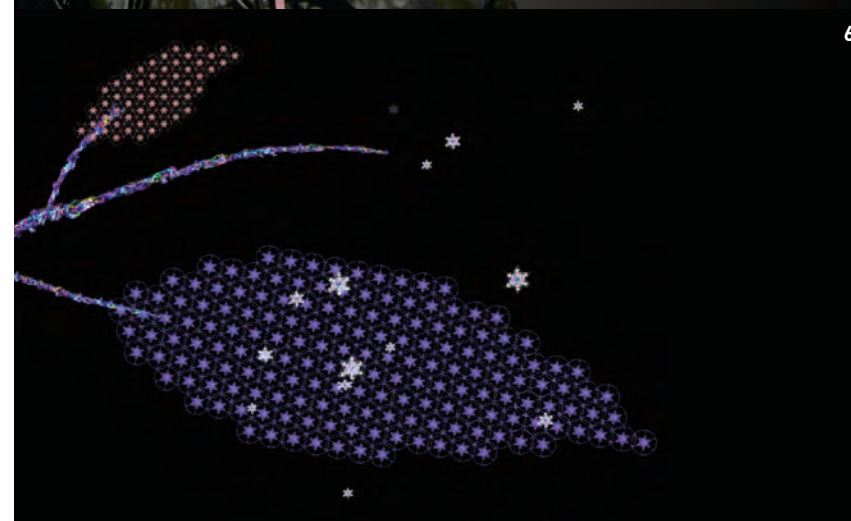
Sulwhasoo's advertising campaign attracts attention because its production process has been different from that of any other campaigns. The campaign will be introduced by the major press media in 10 countries where Sulwhasoo is sold, including Korea, Singapore, Thailand, Malaysia, Indonesia, USA, Vietnam, China, Taiwan, and Hong Kong. Sulwhasoo's 2014 advertising campaign will not be a one time event, but it will heighten the value and expectations of the brand for consumers around the world and display the same visuals and messages to all viewers in the world to solidify its image as a global brand.



1 나전칠기의 주 재료인 전복패. 2 임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스케치에 자개를 입히는 과정. 3 자개 명장 손대현 선생.



4 나전과 미디어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 진시영. 5 LED 화면이 매혹적인 꽃살이 되는 영상. 6 매혹적인 꽃살이 자개로 변화. 7 환상적인 빛을 머금은 매혹적인 꽃살.





손대현 선생의 자개와 어우러진 '윤조에센스 글로벌 광고' 비주얼

자개와 자음생크림이 조화를 이룬 '자음생크림 글로벌 광고' 비주얼



자개의 윤기를 품다, 윤조에센스 광고 캠페인

광고 캠페인의 첫 포문을 연 작가는 우리나라 제1호 나전명장 손대현 선생이다. 그가 참여한 윤조에센스 광고는 자연스럽게 윤기가 우러나는 피부를 자개공예로 표현한다. 특히 광고 속 자개는 윤조에센스의 주원료인 '자음단'을 의미한다. 자개로 만들어진 잎들의 반짝임과 역동적인 움직임은 윤조에센스의 핵심 효능인 건강하고 활기찬 윤기를 표현한다.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은 윤조에센스의 효능을 보여주는 영상 작품을 설화수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선보인다. 영상은 빛으로 물든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설화수의 매화문 꽃살 문양으로 아름답게 변화하고, 이는 환상적인 물결을 이루며, 윤조에센스의 용기로 바뀐다.

자개와 만난 인삼의 효능, 자음생크림 광고 캠페인

두 번째 광고 캠페인은 자음생크림이다. 윤조에센스가 자개를 통해 '자음단'의 효능을 보여줬다면, 자음생크림은 자개를 통해 '인삼'의 효능에 주목한다. 인삼은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때 피부에 전해지는 효능이 강력해지는데 이를 위해 설화수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개발하여 인삼 효능 성분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 피부 본연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차오르게 한다. 전통의 소재를 토대로 현대적인 자개 작품을 완성한 자개 아티스트가 제작한 두 번째 광고는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피부 속까지 채우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뿌리부터 줄기, 잎과 열매에 이르는 자개로 만들어진 인삼이 자음생크림을 감싸 안은 형상이다.

The naturally radiant skin with the mother-of-pearl craft, First Care Activating Serum Ad Campaign

The advertising campaign began with Sohn Dae Hyun, Korea's Mother-of-pearl Inlay Master No. 1.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campaign with Sohn expresses the naturally radiant skin with the mother-of-pearl craft. The mother-of-pearl stretching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product symbolizes 'Jaumdan', the major ingredient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Jin Si Young, a rising media artist, has presented a video work that shows the efficacies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on Sulwhasoo's official Facebook and Youtube page since March. In this 1-minute video, the movement of the dancer in the artist's special LED suit turns into the trace of light, and it is recorded and edited using a computer program.

The efficacies of ginseng,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d Campaign

The second advertising campaign i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The efficacies of ginseng become more powerful when all parts from the roots to the berries are used together. Sulwhasoo developed the world's first bioconversion technology for deeper penetration of ginseng to fortify the skin and fill it with the energy of radiance. The second advertising campaign produced by the mother-of-pearl artist expresses how the skin is filled with the powerful vitality of ginseng as the ginseng in mother-of-pearl embrac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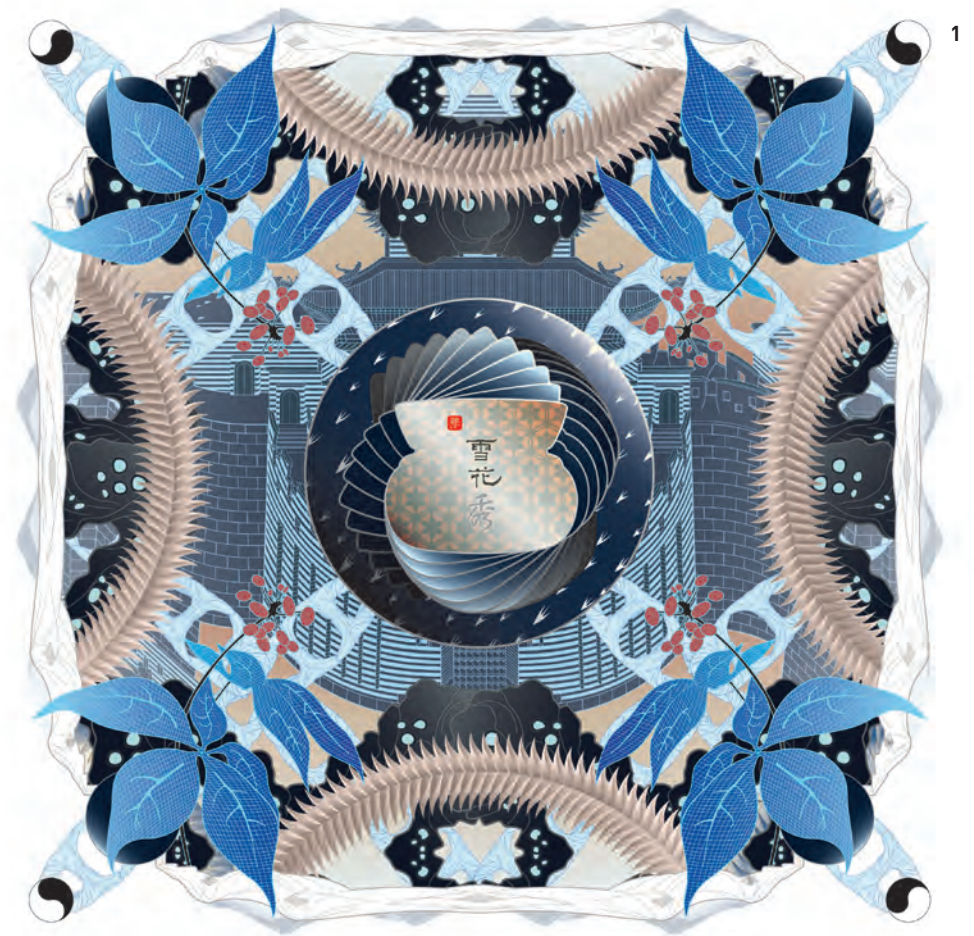
Collaboration with Magazine

매거진에 담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설화수의 광고 캠페인이 장인과 현대작가와의 예술적 만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라면 설화수 매거진 10주년을 기념하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전통과 현대예술의 만남을 의미한다. 캐스퍼 강은 작품이 보여주는 요소들은 곧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주제다. 작품 속에 녹아든 한국의 전통문화는 꽤 흥미로운 형태와 색으로 같이입는데, 그림에서만큼은 전통적 오마주도 역사나 문화 속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진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민화에서 차용한 바위가 그림에선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본질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의 작품은 전통적 요소를 새로운 색감과 형태, 질감 그리고 구성을 통해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설화수 매거진 10주년 표지를 작업한 캐스퍼 강은 자음생크림과 매화문 꽃살, 인삼 등 설화수를 대표하는 요소와 그의 작품 속 전통적인 요소를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한 장면 안에 조화롭게 그려내고 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 우리 전통 건축물, 자음생크림이 배치되어 자연과 인간, 만물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자연의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5

The advertising campaign of Sulwhasoo was an artistic encounter between a master and a contemporary artist, between analog and digital, whereas the art collaboration for the 10th anniversary of Sulwhasoo Magazine symbolizes an encounter between tradition and contemporary art. The elements in his work exist timelessly i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at pervades the work from his perspective is dressed in very interesting forms and colors. In his paintings, even traditional homage is not confined to history or culture but evolves. For example, a rock in the folk painting is expressed as a cloud in his painting or it is given a new role in the form that goes beyond its nature. It is amazing how his expression of traditional elements in modern styles using new colors, forms, textures, and compositions resembles Sulwhasoo's brand philosophy, which pursues th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10th Anniversary Edition harmonize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with its traditional elements of plum blossoms and ginseng in one scene that is beyond reality and virtuality. This signifies that men are inseparable from nature and the Universe, and conveys the philosophy of the Sulwhasoo brand, and incorporates modern science into the wisdom of olden times to realize th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1 설화수의 조화와 균형의 철학을 담은 캐스퍼 강은 작품, 2, 4 실크스크린으로 세밀한 선을 표현하고 세필로 여백의 색을 입히는 작업을 위한 도구들, 3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개성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캐스퍼 강





雪花秀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채울 때 비로소, 피부는 힘있게 살아난다

인삼은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때 피부에 전해지는 효능이 강력해집니다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어 피부를 힘있게 되돌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설화수의 세계 최초 바이오컨버전 기술이 인삼 효능성분을 피부 깊이 흡수시켜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차오르게 합니다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피부 속까지 채울 때, 피부는 다시 힘있게 살아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음생크림

Sulwhasoo





2013년 3/4월호 55호 <설화수의 사계> 자정미백스팟

Four Seasons of Sulwhasoo

사계와 어우러지다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10년의 시간 동안 설화수 매거진은 설화의 사계를 담았다. 봄의 설렘을 담아, 청명한 여름의 기운 그대로, 깊고 아늑한 가을의 운치를 더해, 시린 겨울의 풍광 속 수려한 한국의 사계를 배경으로 설화수의 제품을 만났다. 그리고 잊지 못할 설화수의 사계를 되짚어 보았다.

Service to Uncle in Early Spring
- Lee, Saek

The grass is green and the willow is yellow.
The heart goes crazy in view of spring,
Hoping that the flowers do not fully bloom,
As it is most exciting when the flowers are
about to bloom.

Snowise EX Whitening Spot Serum
This whitening spot serum is formulated for age spots, blemishes, and dullness. Its white ginseng saponin inhibits melanin generation to eliminate the causes of age spots and blemishes, and blocks the expansion of melanin to leave your skin white.

이른 봄에 백부께 울리다
- 이색(李穡)

풀빛은 푸르고 버들 빛은
누런 색으로 물들고
봄 구경에 연일 마음은 미칠 듯하네.
제발 꽃을 활짝 다 피우지는 말기를
꽃이 피려 할 그때가 가장 흥이 나네.

자정미백스팟
기미, 잡티와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하는 화이트닝 스폿 에센스. 백삼 사포닌 성분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의 원인을 케어하고 멜라닌의 확장을 차단해 하얀 피부로 만들어준다.



2011년 9/10월호 46호, <설화수의 세계>
사진 속 윤조에센스는 구형 패키지

여름 편지
- 박상(朴祥)

숲 구름 그윽한 경치가
여름 소식을 알리네.
봄바람이 화려했던 경치를 걷어가버렸다.
그러지 마오,
푸른 연잎 천만 자루 붉은꽃이 터지니
하늘에서 보련화를 뿌려놓은 듯하였다오.

윤조에센스

피부에 닿는 순간 깊고 빠르게 흡수되어 다음 단계에 바르는
제품의 효과를 높여주는 부스팅 에센스. 피부의 다섯가지 균
형을 바로잡아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오는 촉촉한 윤기를
선사한다.

The Letter of Summer
- Park, Sang

The view of clouds in the forest
delivers the news of spring.
The spring breeze took away the colorful view.
Don't do that.
The red flowers burst forth from the green lotus
leaves sprinkled by the sky.

First Care Activating Serum

This boosting serum is applied on the skin right
after cleansing the skin to allow the serum to
penetrate the skin deeply and quickly upon its
application and thereby enhance the effective-
ness of other skin products.



2011년 9/10월호 46호 <설화수의 세계> 진설크림

가을 산행

- 두목(杜牧)

멀리 사람 없는 산에 오르니
돌길이 비스듬히 끝이 없구나.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곳에
사람의 기척이 있어
걸음을 멈추고 석양에 비치는
단풍 숲을 보니
서리 맞은 단풍잎이 한창이라,
그 빛이 봄꽃보다 붉구나.

진설크림

세월의 흔적으로 지친 피부를 집중 관리해 윤택한
피부로 가꿔주는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Autumn Hiking

- Doo, Mok

Hiking up a mountain with no people,
the slanted rocky road sees no end.
I hear people where the white clouds bloom,
so I stop to watch the forest of autumn leaves
under the sunset.
The frosted autumn leaves are everywhere.
Looking closer, their colors are brighter than
the spring blossoms.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This anti-aging cream is formulated with ex-
tracts of pine roots and red pine leaves to take
care of tired skin with signs of aging, and to
prevent and correct the various signs of aging.



2014년 1/2월호 60호 <설화수의 사계> CC유액

봄 여름 가을 겨울

- 도연명(陶淵明)

봄 물은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산봉우리들처럼 떠 있네.

가을 달은 영롱하리 밝은 빛을 비추고

겨울 산마루엔 큰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네.

CC유액

실크 유액을 발라 마무리한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투명한 자기 피부로 연출해 주는 유액 타입의 설화수 CC유액. 부드럽게 발리고 균일하게 밀착되어 잡티를 깨끗하게 커버해 준다.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 Do, Youn Myung

The pond is filled with water in spring and the clouds of summer float over the peak.

The autumn moon has a bright, lucid light and a big pine tree stands on the mountain ridge in winter.

CC Emulsion

CC Emulsion makes your skin porcelain-smooth and -transparent, like the surface of porcelain finished with silk enamel. It applies smoothly and evenly to cover up blemishes.



Healing of Sulwhasoo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다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영혼을 편안하게 해 줄 진정한 안식처가 여기 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인 노하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제공된 설화수 스파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그녀의 심신은 다스려질 것이니.



설화향

모든 스파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향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매화향, 피부 스트레스 완화 기능의 솔향, 침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침향, 박달나무 추출향으로 안정 효과가 있는 백단향의 4가지 향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Sulwha Fragrance

Each of our spa programs begins with your choice of fragrance. You can choose from four fragrances: plum blossoms, pine for stress relief, aloeswood for vitality, and sandalwood from a kind of birch for tranquility.

세족

두 번째는 솥대에 마련된 따뜻한 물에 홍삼진액을 물과 희석시킨 홍삼정을 부은 후 발을 담가 피로감을 없애는 단계다. 황토 소금과 인삼 씨앗 껍질을 섞어 만든 천연 재료로 발을 케어한다.

Foot Bath

Red ginseng extract diluted in water is poured into a brass bowl filled with warm water, into which your feet are dipped to relieve fatigue. A natural exfoliator, made by mixing red clay salt and ginseng seed shells, is used to exfoliate the skin on your feet.



설화정

조선시대 왕들이 아침에 일어나마자 받았다는 '건포마찰'이라는 왕실양명술을 적용한 것으로, 고객이 선택한 향의 에센셜 오일을 바른 천에 묻혀 이를 활용해 얼굴을 가볍게 케어한다. 미세한 마찰과 정전기가 피부 에너지를 활성화 해준다.

Sulwha Dry Cloth Massage

This ritual lets you experience the 'Dry Cloth Massage' that kings in the Joseon Dynasty enjoyed each morning. A dry cloth is infused with essential oil of your chosen fragrance and used to gently massage your face. The delicate friction and static electricity stimulate your brain cells, to promote skin regeneration.



설화본생

설화정이 끝난 후에는 고객이 선택한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설화본생'은 설화수 제품에 들어가는 한방성분으로 만든 지음단 불을 따뜻하게 찌낸 것으로 어깨 부위 피부를 케어해주는 것이 특징. 이후 설화수 지음생 라인을 단계별로 사용해 얼굴과 바디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준다.

Ginseng Full Story

After the Scented Dry Cloth Massage, your chosen program begins. 'Ginseng Full Story' is one of the signature programs of Sulwhasoo Spa. The Jaumdan Ball, formulated with the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of Sulwhasoo products, is steamed until it is warm to relieve the muscles on your shoulders and your other stiff body parts. Then the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is used to revitalize your face and body.



진설

설화수 스파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적송유를 이용해 바디 피부의 활성을 돕고 피부 에너지를 활성화하며, 페이스 진설 앰플 관리 및 호박 트리트먼트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준다.

Time Treasure Rebirth

One of the signature programs of Sulwhasoo Spa. The red pine oil promotes circulation and rejuvenation of the skin. Bring back beauty to skin that transcends the passage of time with the facial time treasure and pumpkin treatment.



다함설

190분에 걸쳐 최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삼, 홍삼, 백삼 등 전통 한방 원료로 피부를 케어하는 다함설 크림을 사용하고, 한방성분을 돋보이게 하는 페이스 & 바디 흑요석 툴을 이용하여 영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전달한다.

Harmonizen Regeneration

This 190-minute program is the premium program of Sulwhasoo Spa. It applies Harmonizen Regenerating Cream, which refines the skin with the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of Danshen, red ginseng, and white ginseng, and The best service is offered to women who pursue glorious and healthy living using the facial and body obsidian tool that showcases Korean herbal medicine components.



설화수 스파 매장은 롯데호텔 소공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설화차

바디 혹은 페이스 케어를 마친 후에는 설화수 스파의 기본 정신인 내면과 외면의 조화의 가치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설화차를 마시는 것으로 설화수 스파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된다.

Sulwha Tea

After the body or facial care, the Sulwhasoo Spa Program is finished by letting you drink Sulwha Tea, which harmonizes your inside and outside. It crowns harmonize inside and outside as the fundamental spirit of Sulwhasoo Spa, and maximizes the effectiveness of our programs.

진정한 힐링을 위한 공간, 설화수 스파

각종 미세먼지와 황사, 자외선까지 가세해 피부를 위협하는 봄을 맞아 설화수 스파의 프로그램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세심하게 어루만져주면 어떨까. 피부 본연의 윤기와 피부결을 살려주는 트리트먼트, 각종 오염물질을 말끔히 케어해 주는 트리트먼트,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피부 균형을 잡아주는 트리트먼트, 세 가지 라인으로 구성된 페이스 트리트먼트는 순환회복, 예민진정, 영양집중, 미백관리 등과 같이 10가지 이상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어 피부 고민에 맞는 완벽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페이스뿐만 아니라 바디, 시그너처 프로그램 역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친 현대인들의 불균형한 심신을 케어하고 내재된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설화수 스파의 철학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귀한 전통한방 성분이며, 지친 피부를 다스리는 정(精)으로 시작해 호박이나 옥, 백자, 흑요석과 같은 전통 도구와 테라피스트의 손길로 피부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기(氣) 단계를 거쳐 설화차를 마시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신(神)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뤄낸다. S

에디터 평은영 사진 문성진 이은숙 헤어 권영은 메이크업 재갈경 모델 천영은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

Our three facial treatment lines—Treatment that revives the natural radiance and texture of your skin, Treatment that completely removes pollutants from your skin to leave your face clean, and Treatment that supplements your skin's nutrition to achieve balance—are further classified into more than 10 programs for circulation recover, true sharpness, deep nourishment, whitening care and so on. You can choose the best program for your needs. It is Sulwhasoo Spa's philosophy to focus its signature programs for the face and the body on treating the unbalanced bodies and minds of modern people tired by stress and fatigue, and on restoring the natural beauty hidden inside. Each of our programs begins with Jeong (精) that refines tired skin with precious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proceeds to Qi (氣) that circulates the energy in the body with traditional amber, jade, white porcelain, or the obsidian tool and the professional touch of the therapist; and finishes with Shin (神) that restores the tranquility of the mind with a cup of Sulwha Tea. These programs harmonize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dy.

전통과 현대의 조우



Harmony of East and West

東西古今의 명품 문화가 만나다

단아와 절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양과 미니멀하면서도 시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서양의 명품 문화가 만났다. 동양(東洋)과 서양(西洋),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의 주제 아래 동서고금의 문화가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되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다.

마
다
의
시
크
리
다
의
소
양
은
모
든
것
에
대
해
다
의
시
크
리
다

왼쪽 페이지 우리나라 전통 비녀 중에서 가장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영락잠은 나비 모양 딸잠을 달았고 물총새의 깃털을 붙여 만들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7호 옥장 엄익평 작가의 작품으로 가원공방에서 판매, 단아한 하얀색 동정은 담연, 커스텀 주얼리 디자이너 미리엄 헤스켈의 진주목걸이는 더퀸리운지 판매. **오른쪽 페이지** 전통 지우산은 윤규상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판매, 조선 후기 한복을 재현한 생고사 소재의 소색 저고리와 생고사 소재의 먹색 활차미로 구성된 미인도 한복은 담연, 마놀로블라닉의 향기시 펌프스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판매.

Enticing the women of the East and West

Left Page Yeongnakjam, which is the most glamorous design among the traditional Binyeo of Korea and sold by Gawon Craft, is embellished with the butterfly-shaped Ddeochel (women's hair ornament worn in the ancient palace) and feathers of the common kingfisher. It is the work of Eom, Ik-Pyung. He is the jade master designated as Seoul Intangible Cultural Asset #37. The elegantly white Dongjeong sold by DAMYEON and the Pearl Necklace, crafted by the custom jewelry artist Miriam Haskell, is sold by THE QUEEN Lounge. **Right Page** Traditional paper umbrella is the work of artist Yoon, Kyu-Sang and sold by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Miindo Hanbok, which is a set of Sosaek Jeogori (top) and Dark Gray Hotchima (skirt) made from unmaturing silk according to the design of Hanbok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is sold by DAMYEON while the Manolo Blahnik's hangisi is sold at the Galleria Department Store.





스타일링
다재양
아티스트
의

왼쪽 페이지 백자 달항아리는 이은범 작가의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 판매, 클래식한 갤러리의 느낌을 연출한 액자는 스타일리스트 제작. 오른쪽 페이지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의 <\$> 작품을 프린팅한 족자는 스타일리스트 제작. 한국 전통의 대형 붓은 김종건의 필묵 소장품.

Smeared in the art of East and West

Left Page White Porcelain Dalhangari by artist Lee Eun-Bum is sold by SKIKIJANG of Jeong So-Young. The frame used mimics the feel of a classical gallery and was created by the stylist. **Right Page** The scroll with the <\$> print by Andy Warhol, a world-renowned pop artist, was created by the stylist. The traditional Korean brush in large scale is owned by Kim Jong Gun.

왼쪽 페이지 모더니즘 디자이너 알바알토 작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말아서 보관하는 스크린인 '100 screen'은 에이후스 판매, 나무 소재의 용형다탁은 고영규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판매, 사슴 뿔을 연상시키는 캔들 홀더는 독일을 대표하는 리빙 브랜드 까레에서 판매, 오른쪽 페이지 방짜유기 수저세트는 경북 무형문화재 제9호 김천장장 故김일웅 작가의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에서 판매,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슈발도리앙 프레젠테이션 접시와 수프 접시 모두 에르메스 테이블웨어로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판매.

Adding the spatial aesthetics of East and West

Left Page '100 screen' created by the modernist designer, Alvar Aalto, can be rolled up for storage when not in use is sold by a.huse. The wooden Dragon-shaped Tea Table is a work of artist Ko Young-Kyu and sold by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The candleholder in the form of a deer antler is sold by KARE, Germany's leading living brand. **Right Page** The BangjjaYugi Silverware Set is a work of the late Kim Il-Woong, the Jing master of Gimcheon. It is designated as Gyeongbuk Intangible Cultural Asset #9 and sold by SKIKIJANG of Jeong So-Young. The Cheval d'Orient presentation plate and soup dish inspired by a horse are from Hermes Tableware and available at Hyundai Department Store's main location.



왼쪽 페이지 최상품의 오동나무와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을 사용해 순금가루로 전통 문양의 당초문양 속 봉황을 그려 넣은 산조가야금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선생의 작품. 17~18세기 이탈리아 전통 제작방법으로 최고의 악기 제작자 스캇 카오가 완성한 바이올린은 스캇카오코리아에서 판매. 이탈리아 장인의 핸드메이드 작품인 베네치안 마스크는 볼토메디아 뮤직페이스로 루이스 르장 판매. **오른쪽 페이지** 이탈리아 아코디언의 명가 스칸달리의 핸드메이드 폴리포니코X 아코디언은 코스모스 악기에서 판매. 크고 화려한 술이 달린 부포상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놀이보존회 소장품.

Meeting the games of East and West

Left Page SanjoGayageum is made out of premium royal foxglove tree and the yarns from cocoons and drew in the Phoenix from the traditional foliage scrolls in pure gold powder. It is the work of Go Heung-Gon, the musical instrument master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42. The Violin by the best instrument maker, Scott Cao used traditional Italian techniques from the 17-18th Centuries. It is sold by Scott Cao Korea. The Venetian Mask, handmade by an Italian master, is a Volto Media Music Face and sold by Luis Le Jean. **Right Page** PolifonicoIX Accordion, handmade by the premium Italian accordion maker, Scandalli, is sold by Cosmos Instruments. Buposangmo with a big, colorful tassel is from the collection of Namsadang Nori Preservation Society and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3.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814-0250), 고흥군악기연구원(02-763-3508), 남사당놀이보존회(02-557-3880), 담연(02-546-6464), 더퀸러운지(02-548-7218), 디자인 캐레(02-545-9871), 루이스 르장(02-2249-4387), 마블로블라네(02-3443-2113), 스캇카오코리아(02-588-5077), 에르메스 코리아(02-3449-5486), 에이투스(02-3785-0860),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코스모스 악기(02-3486-8844), 필묵(02-3142-369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02-733-9041)

Sulwhasoo Meets Nature

자연의 진가가 아름다움을 피우니

자연의 이치를 담은 여섯 가지 설화수의 고귀한 원료가 티 없이 순결한 속내를 드러낸 백자와 만나 고결하고 단아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품다.



純을 품다 地黃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지황을 납작한 백의 그릇에 담았다. 약용식물로 뿌리의 생것은 생지황, 건조시킨 것은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은 숙지황이라 한다. 몸에 열을 빼고 보신 기능을 더하고자 주로 약재로 쓰인다. 특이한 냄새가 있으나 맛은 달다.

Embracing the pure Rehmannia

Rehmannia, in its pure state, is contained in a white bowl. It is a medicinal plant, and its roots are used raw, dried, or steamed and dried. It is often used as a medicinal herb to relieve body heat and to strengthen the body. It has a distinct smell, but it tastes sweet.



白과 놀다 蓮子肉

연자육이 백의 그릇과 놀이를 하듯 조화를 이뤘다. 예부터 연자육은 갈아서 쌀과 함께 죽을 끓여 먹으면 기운을 북돋워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연자육은 늙지 않으며 배고프지 않게 하여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약재로 널리 애용하였다.

In the white Mature lotus seeds

Mature lotus seeds, fruits, and stems are contained in a white vessel for ultimate skin hydration and radiance. Since the old times, mature lotus seeds have been known to strengthen and energize the body when ground and added to rice porridge. Mature lotus seeds have been widely used for longevity, as they defy aging and eliminate the sense of hunger.



내와外在가 하나되다 百合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좇지 말고 백합의 비늘줄기가 지닌 윤택한 피부의 효능을 들여다보듯 겉과 속이 백의 자기로 하나를 이루었다. 백합의 비늘줄기는 줄기와 뿌리가 이어지는 부분을 감싸 영양을 보존한다. 때문에 피부를 좋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몸의 기운을 보하는 한약재로 쓰인다.

The oneness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White Lily

The white porcelain blends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to one, baring the skincare efficacies of scaled stems of White Lily. White Lily's scaled stems wrap around the link between the stem and the root to preserve the nutrition. That is why they are used as a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 for skin refinement and body health.



白에 눕다 芍藥

작약 꽃의 아름다움보다 그 깊이를 보기 위해 백에 누웠다. 작약의 뿌리는 약재로 쓰이며 보통 차로 먹거나 쌍화차의 재료로 이용된다. 몸이 허할 때 복용하면 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Lying on white Peony flower

Peony flower lies on white to show the depth of its beauty. Its roots are used as herbal medicine. They are usually drunk as tea or used to make Ssanghwa tea. Ingested when you feel weak, they will replenish your energy.



內를 채우다 玉竹

겉을 이룬 백자 속에 담긴 옥죽이 여인의 건조함을 윤기 나게 하는 깊이 있는 미를 전한다. 옥죽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지녀 인체의 음의 기운을 더해 주는 원료라 했다. 동글레라 불리는 옥죽은 선조들이 나물로 먹거나 된장이나 고추장 속에 박아 장아찌로 만들어 먹었다. 특히 좋은 향과 효능을 지녀 주로 차로 즐긴다.

Fill the inside Solomon's seal

Solomon's seal in the layers of white porcelain delivers the depth of beauty that refines women's dry skin. It has been known for its warm and smooth character as a supplement to the Yin energy of the human body. Our Korean ancestors enjoyed Solomon's seal with seasoning or salted it with soybean paste or hot pepper paste.

百이 되어 美를 완성하다 蔘

삼이 백을 통하며, 여인의 고결한 아름다움이 통하는 것을 형상화했다. 삼은 원기를 보하고 몸의 기능을 높여줘 귀신 같은 효험을 지닌 신초(神草)라 불렸다. 맛은 달고 약간 쓰나 성질이 따스하여 보신을 위한 탕의 재료로 함께 요리하여 먹는다. 특히 인삼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노화를 막고 희고 고운 피부로 만들어주며, 촉촉하고 윤택한 피부가 된다.

All for beauty Ginseng

This describes how ginseng is used for the precious beauty of women. Ginseng has been known as the sacred herb that supplements the energy and strengthens the functions of the body supernaturally. It is sweet and slightly bitter, and warm in nature. It is often added to soups to strengthen the body. When applied to the skin, ginseng defies aging, brightens and refines the skin, and leaves it supple and radiant.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윤현석, 박진우

사진 이종근 에디터 김미경





Sulwhasoo Women

그녀들의 삶에서 조화를 잇보다

설화수 매거진 10주년을 맞아 정신과 육체의 조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운 균형을 통해 더욱 빛나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여성 4인을 만났다. 일과 가정, 사회와 개인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녀들이지만, 몸과 마음을 철저히 가꿔가면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통해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그녀들의 기품 넘치고 향기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왼쪽부터 ABC 방송국 서울지국장 조주희, 설화수 VIP 김봉순, KBS 국제부 외신통역사 이승연, 유엔파트너즈 대표이사 유순신.

조주희 국장이 입은 슬리브리스 드레스는 퍼블리카 아틀리에, 반지와 방글 코아누르, 김봉순님이 착용한 화이트 팬츠는 질 스투어트, 펌프스 나무하나, 이어링과 브로치, 링은 모두 코아누르, 이승연 외신통역사가 착용한 롱 드레스는 퍼블리카 아틀리에, 스트랩 슈즈는 에스콰이아, 유순신 대표이사가 착용한 재킷과 팬츠 모두 에스까다.

에디터 평은영 사진 김상근 **메이크업** 원영미 **헤어** 조영재 **세트** 디락 **도움** 주신곳 나무하나(02-517-4394), 에스까다(02-3014-7419), 에스콰이아(02-514-9006), 질 스투어트(02-540-4723), 퍼블리카 아틀리에(02-512-4877), 코아누르(02-3445-9707)

[Audio Interview]



조화와 균형의 삶을 살아가는 그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Lee Seung Yeon

심신을 채우는 사랑, 국제부 외신통역사 이승연



프릴 톱 랄프로렌 스커트 퍼블리카 아틀리에 빈지 코이누르

KBS 국제부 소속 CNN 뉴스통역사 이승연은 국제 뉴스를 타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지성에 170cm가 넘는 키,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에 특유의 유쾌함으로 주변의 모난 것들을 둥글게 만들어버리는 그녀는 외모 관리도 철저한 편. 두꺼운 방송 메이크업을 한 날은 반드시 여민마스크 팩을 하고 잠들고, 건조한 느낌이 들 땐 진설 영양크림을 필히 발라준다. 요즘엔 홈 스파를 자주 하는데, 보사노바 풍의 재즈와 이국적인 향을 머금은 불빛의 향초, 천연 성분의 입욕제를 준비해놓고 욕조에 지친 몸을 맡기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 모두 힐링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녀는 30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외면을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 것에도 집중한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즉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작년 연말 산동네 연탄 배달도 하고, 신생아 모자를 직접 뜨개질해 ‘세이브더칠드런’에 보내면서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제 작은 손길이 보탬이 되는게 의미있고 행복해요.”

30대부터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얼굴에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한다고 했던가.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아름다운 외모는 외면만 가꾸는 것이 아닌, 주변을 살피며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와 사랑을 전하는 따스한 내면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The 30s is when you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 in your career, when you ponder to find your true ego, and when you are heartbroken by unbearable passion. Seung Yeon Lee, the CNN international news translator of KBS International Division, is currently passing that tunnel.

Since she turned 30, she has focused on beautifying her inside in addition to her outside. She tries to be a better person by sharing love with others.

“I delivered briquettes to mountain villages and knitted hats for newborns for Save the Children last yearend. It is so meaningful and fulfilling to be able to do something for those born in underprivileged environments.”

Cho Joo Hee

내면을 드러내는 의지와 용기, ABC방송국 서울지국장 조주희



블라우스 퍼블리카 아틀리에, 이어링과 링 코이누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고 미국 ABC 뉴스로 송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주희 국장은 천성과 재능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강행군을 해온 그녀는 워낙 타고난 체력이 약해 의식적으로 관리하려 애쓴다.

“요가, 필라테스, 골프, 수영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기지만, 2년 전부터는 댄스스포츠의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움직임에 심취되어 있어요. 선수들처럼 한껏 치장하고 세계스포츠선수권대회를 관람하며 파티를 즐기는 일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죠.”

조주희 국장은 40대가 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졌다고 고백한다. 주변의 오해나 질책도 쿨하게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지금이 만족스럽다.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를 균형있게 가꾸는 비결을 묻자 “기슴속에 가두고 있는 걸 스스로 끄집어내는 거죠. 행동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다짐이든 의견이든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용기니까요” 라고 설명했다.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외모와 자신의 일에서 완벽한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조주희 국장. 단지 외면만 가꾸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한결 같은 모습의 그녀를 통해서 우린 20~30대와 견주어 전혀 부러워할 것 없어 보이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40대 여성의 진가를 엿보았다.

Director Joo Hee Cho, who is always busy gathering news from Korea and elsewhere in Asia for transmission to ABC News, says her job is perfect for her nature and talents. A confident woman in her 40s who has achieved perfect harmony of her inside and outside should be able to act and talk according to her firm will and courage, rather than just trying to look younger.

She says she has freed herself from the views of others and become more confident since she entered her 40s. She is content that she can be cool about any misunderstanding or blame. When asked about her secret to staying beautiful both inside and outside, she explained: “It is bringing out what you are hiding inside. If you don't take any action on it or express it, it becomes nothing.”

Yoo Soon Shin

진정성으로 채운 조화의 삶, 유엔파트너즈 대표이사 유순신



레이스 재킷 에스까다, 네크리스와 링 코이누르

유순신 대표이사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의 채용을 성사시키는 국내 최고의 커리어 컨설턴트이자 커리어 컨설팅 회사 '유엔파트너즈'를 설립한 대표적인 여성 CEO다. 특히 2006년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을 만큼 활력적인 그녀는 50대에 접어든 이후, 인생의 나침반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채우기보단 비우는 일을, 혼자보단 더불어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운영하는 회사도 이익추구보다 사회환원 모드로 패턴을 조정했다.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갖고 원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만 지니게 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정제되어 내면과 외면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눈빛이나 분위기,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건데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사람은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더라도 예쁘게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모임자리는 되도록이면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매너가 몸에 밴 듯 기품 있는 말투와 매력적인 눈웃음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유순신 대표이사. 우린 그녀를 통해 50대 여성이 지닌 내재된 원숙미와 내면과 외면의 완벽한 합을 이뤄낸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상을 느낄 수 있었다.

President Soon Shin Yoo is the top career consultant in Korea and the leading female CEO who established 'You & Partners' for the recruitment of executive officers of large and multinational companies in Korea. She says her life has seen a major change since she turned 50. She has been interested in giving rather than receiving, emptying rather than filling, and working with others rather than being alone. Her company has also been adjusted to pursue social contributions rather than profit.

Saying that she can be naturally positive and good when she focuses on what she wants with authenticity, she believes her body and mind can be cleansed by authenticity to be firmer and more beautiful both inside and outside.

Kim Bong Soon

오롯이 내게 집중하는 시간, 설화수 VVIP 고객 김봉순



블라우스 퍼블리카 아틀리에, 이어링과 링 코이누르

참으로 사소한 생각이 발단이 됐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다가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롯이 내 자신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나 자신에게 아름답고 멋진 여성이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설화수를 사용해 온 VVIP 고객 김봉순. 그녀는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나이에 국한되는게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에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다짐 후 그녀의 아름다운 60대로 살아가기 프로젝트의 시작은 자신의 '건강챙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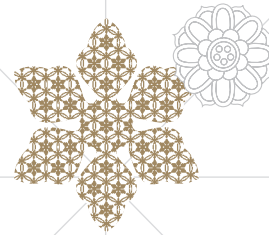
오전 일과는 피트니스로 채워진다. 러닝머신과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요가로 유연성을 보충하며 에어로빅으로 심신의 즐거움을 유지한다. 그녀의 건강한 삶의 포인트는 바로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패션, 뷰티,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다. 마음이 즐거워야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도 아름다워진다고 믿는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밸런스야말로 제2의 인생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지름길이라 여긴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모든 생활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주위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파하는 법이니까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젊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외모만큼이나 긍정적인 시선과 예쁘게 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S

It was a simple thought. "Have I paid enough attention to myself all this time?" She believed that she should start investing time in herself to be beautiful and gorgeous, as she has devoted her life to her family all this time. There is a saying that life begins at 60. Ever since she made up her mind, she started her project to become a beautiful woman of 60 by staying heal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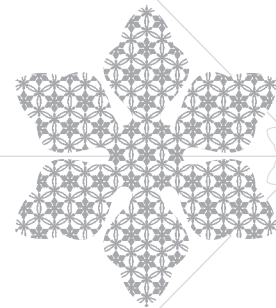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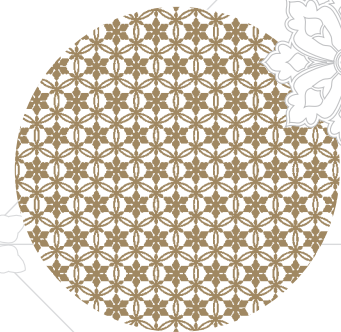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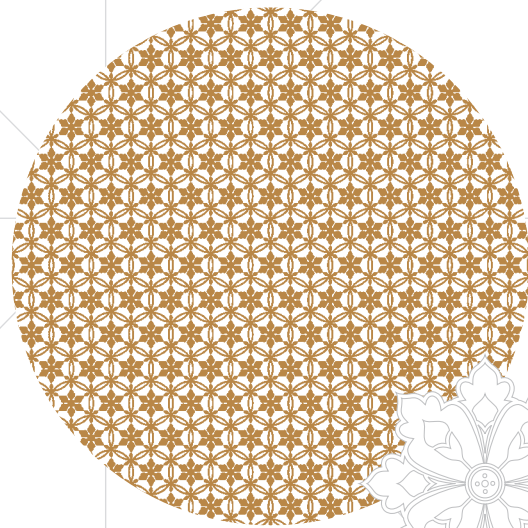
As she believes that a comfortable heart beautifies one's looks, she thinks balance between 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 the faster track to a better life in its second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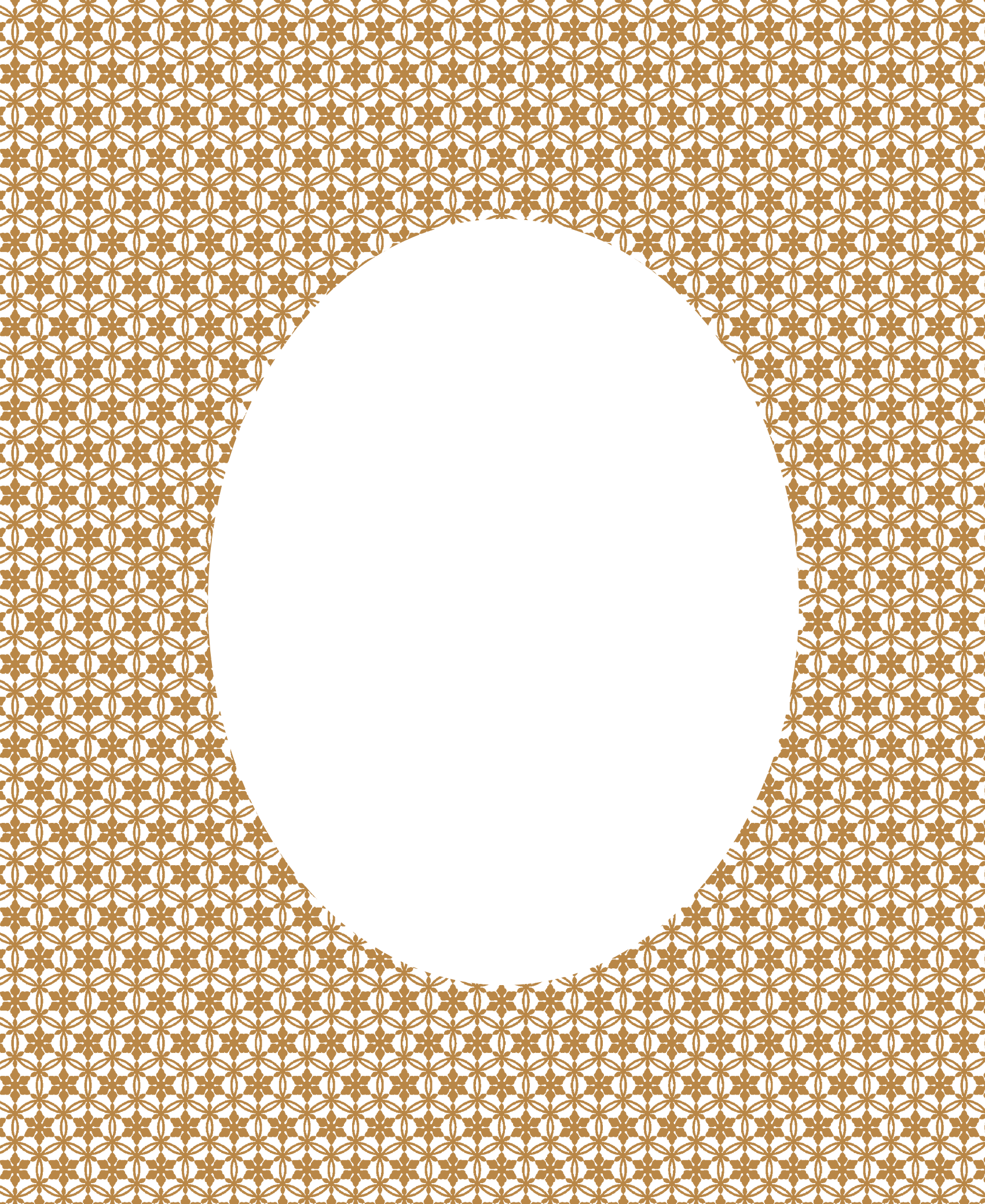
"A positive mindset should be the basis of life. Those who can control themselves can be considerate of others and spread their positive energy to others."



설화수 매거진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은 강산도 변한다고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설화수 매거진은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하여 설화수만의 아름다운 미학을 담은 대표적인 고은여성문화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화수 매거진은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 몸과 마음, 전통과 현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여인의 진실된 아름다움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Sulwhasoo Magazine celebrates 10th anniversary.
People often say even mountains and rivers change in 10 years, as it is a long time. In 10 years, Sulwhasoo Magazine has become the leading cultural periodical for women by combining the elegance of tradition with modern aesthetics to convey Sulwhasoo's original beauty. Sulwhasoo Magazine has striven to capture the philosophy of the Sulwhasoo brand, which pursues harmony and balance between Asian philosophies and Korean wisdom, and to achieve the true beauty of women through the balance and harmony of nature and people, body and mind, and tradition and modernity, without going against nature. Sulwhasoo Magazine promises to show the original aesthetics of Sulwhasoo.





Best of the Best

설화수를 대표하는 제품 10가지

설화수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아이템 10가지를 소개한다.
설화수만의 전통 원료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한 설화수 베스트 프로덕트 컬렉션.

시그너처 상품
Signature Product

자음생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인삼 결정체가 피부를 개선하여 노화의 흔적을 지워주는 한방 고농축 인삼 크림. 효소처리 홍삼 사포닌 성분이 노화의 흔적을 거두어주고, 진생베리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줘 피부 탄력과 영양을 높여준다. 맑고 윤택한 피부로 구현하여 피부 나이를 자연스럽게 줄인다.

This concentrated Korean herbal medicinal ginseng cream is formulated with ginseng essence to restore the skin, to eliminate signs of aging. Enzyme-treated red ginseng saponin eliminates signs of aging, and ginseng berries fortify the skin barrier for resilience and nourishment.



윤조에센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피부에 닿는 순간 깊고 빠르게 흡수되어 다음 단계에 바르는 제품의 효과를 높여주는 부스팅 에센스. 피부의 다섯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오는 촉촉한 윤기를 선사한다.

This boosting serum is applied on the skin right after cleansing the skin to allow the serum to penetrate the skin deeply and quickly upon its application and thereb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ther skin products.

차별화된 럭셔리 안티에이징
Luxury Anti-aging

다함살 크림
Harmonizen Regenerating Cream

2010년부터 복원 재배를 통해 완성한 단삼 원료를 사용,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피부로 다스려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다함살의 주요 성분인 홍삼과 단삼이 피부노화의 흔적을 다스려 속부터 탱탱한 탄력과 생기가 차오르게 하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한다.

This premium anti-aging cream is formulated with Danshen, which was restored for cultivation in 2010, to make damaged skin younger-looking and healthier. Red ginseng and Danshen, the major ingredients of Dermosu™, removes signs of aging from the deepest layer of the skin and improves the skin's resilience and vitality, aside from inhibiting melanin generation. The cream contains a highly concentrated formula that revitalizes the skin, coupled with the obsidian spatula, for luxury and quality.



포도문 원반은 서울 무형문화재 제호 나전칠기장 손대현 작가의 작품으로 하이엔드코리아에서 판매.

진설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세월의 흔적으로 지친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노화로 인한 다양한 고민에 대응하여 개선해 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사계절 푸른 적송엽의 피부 생명력 성분이 지친 피부에 깊은 에너지를 전달해 힘있게 관리해 준다.

This anti-aging cream intensively cares for skin tired by aging by preventing and resolving various concerns caused by aging. A skin revitalizing formula containing red pine, which stays lush and abundant throughout the year. It rejuvenates tired-looking skin.

진설아이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섬세한 눈가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완성해 주는 고농축 아이크림. 소나무의 귀한 기운을 담아 생기를 일깨워주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피부 상태로 만들어준다. 눈가 피부에 촘촘한 보호막을 형성해 한결 젊고 매끄러운 눈매로 가꾸어준다.

This highly concentrated eye cream instantly firms and smoothes the delicate eye area. It contains the precious energy of pine trees that gives liveliness and leaves the skin perfectly harmonized with it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e cream restores the natural health and beauty of your skin and forms a dense protective barrier around the eye area for much younger and more smooth eyes.



윤학문 협업은 나은크라프트에서 판매.

혁신적인 상품 Innovation

소선보크림 Renodigm EX Dual Care Cream

빛과 열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개선해 주는 안티에이징 데이 크림. 겨울 편백나무와 오매, 홍삼을 원료로 하여,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자외선 차단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This anti-aging day cream protects the skin from too much light and heat, and corrects wrinkles. Formulated with the Hinoki cypress of winter, smoked dry plums, and red ginseng, it forms a protective barrier on the skin to block both UV rays and heat that cause aging.

퍼펙팅 쿠션 Evenfair Perfecting Cushion

퍼펙트한 커버력과 보습 지속력으로 잡티 없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윤기를 선사하는 멀티 쿠션 파운데이션. 자외선 차단과 미백효과 외에도 주름개선기능도 지녀 피부 탄력 케어 및 기미와 잡티, 표정 주름까지 세밀하게 커버해 준다. This multi-cushion foundation provides perfect coverage and long-lasting hydration to the skin for flawlessly healthy and resilient radiance. With sunscreen, whitening, and wrinkle correcting functions, it carefully firms the skin and covers age spots, blemishes, and expression lines. It delivers lasting nourishing moisture.



단청 소슬문의 특징을 재해석한 단청 블럭매트는 더미츠에서 판매.

전통과 현대의 조화 Harmony

미안피니셔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1500년을 이어온 미안수의 지혜를 토대로 설화수의 과학이 더해진 제품. 스킨케어의 모든 성분을 감싸, 맑은 윤기가 생동감있게 퍼지는 귀한 인상을 만들어 준다.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탄생한 녹삼효™ 성분이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 피부 자체를 더욱 강하고 윤기나게 커버하는 혁신적인 제품.

It combines the science of Sulwhasoo and the wisdom of Miansu with its 1,500 years of tradition. It encompasses proper skincare, mainly focusing on skin radiance and vitality. Green Ginseng Complex™, which is the perfect combination of green tea and ginseng, provides a breathable layer that leaves the skin looking healthier and more supple.

예소침 크림과 패치 Microdeep Intensive Filling Cream&Patch

예소침 크림과 입가 피부를 팽팽하게 다스려주는 볼이는 한방 필러 예소침 패치는 설화수의 특허받은 미용법으로 팔자 부위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Microdeep Intensive Filling Cream uses the principle of Korean herbal medicinal acupuncture to treat the nasolabial folds, and Microdeep Intensive Filling Patch firms the lip area. Together, they provide intensive care for the nasolabial folds with their patented formulas.

*예소침 패치 : 지식재산(등록 특허) - 117258(292-08-02)

실란팩트 Shine Classic Multi Powder Compact

초순수 파우더로 투명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고 매화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피부 보호효과도 얻을 수 있다.

Shine Classic Multi Powder Compact leaves your skin radiant and vibrant. It is characterized by its package that recreates the plum blossoms that represent traditional Korean women, with the traditional inlay technique.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도움 주신 곳 고화속 스튜디오(031-763-6380), 나은크라프트(02-779-2259), 더미츠(070-7557-9491), 박선경(02-552-6838), 하이랜드코리아(02-797-3553)

산호삼천주 노리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전수교육 조교 박선경의 작품.



Sulwhasoo Magazine Cover

설화수 매거진 10주년을 돌아보며

에디터 김지선

설화수 매거진의 이미지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의 콘셉트를 표지 한 것에 집약시켜왔다. 한국 전통공예작품, 규방 문화, 한국의 보물, 설화문화전 작품으로... 지난 10년 동안 크리에이티브한 사고와 노력을 기울인 사진가, 스타일리스트에게 듣는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야기.'

2003년

현대 작가의 전통 공예품 소개
Introducing the Traditional Craft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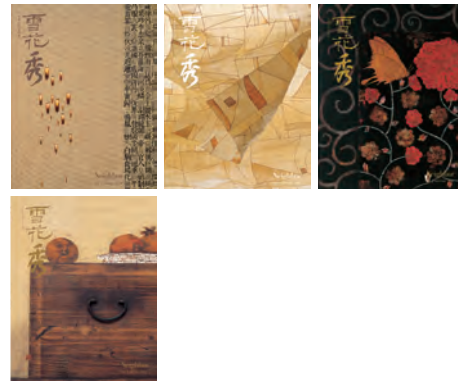


“설화수 매거진은 우리의 고급스러운 상류 문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라진 문화들을 담으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은 참 즐겁더군요.” 포토그래퍼 이종근

“I think Sulwhasoo Magazine opened our eyes to the luxurious upper-class culture of Korea. It was very pleasing for me to capture with my camera a culture that had disappeared to share with the public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Lee Jong-keun, Photographer

2004년

현대 작가의 전통 공예품 소개
Introducing the Traditional Craft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초창기 표지는 현대작가의 전통 공예품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어요. 작가의 손으로 탄생한 공예품은 누가 봐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작가의 톤이 한국적인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포토그래퍼 이종근

“The early covers captured the traditional craft creations of contemporary artists. The craft items that the artists created by hand are comforting to the eyes of anyone, I was able to see the charms of Korea reborn from the hands of the artists.” Lee Jong-keun, Photographer

2005년

시즌별 규방 문화
Seasonal Culture of Gyubang



“사진을 통해 제가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양적인 감수성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정물 세팅부터 사진 작업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애착이 많아요.”

포토그래퍼 조성연

“I wanted to deliver the oriental sentiment that I wished to feel and express through the photographs. I am strongly attached to it because I took charge of everything--from setting the objects to taking the photographs.” Jo Seong-yun, Photographer

2007년

생활 고전을 찾아서
In search of Everyday Classics



“음식디미방과 양화소록, 규합총서, 조침문, 향약집성방 등의 고전을 토대로 5회에 걸쳐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이미지가 차갑게 때로는 온화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시간이었어요.” 스타일리스트 김지현

“We created about five images based on the classics Umsikdimibang, Yanghwatorok, Gyuhapchongseo, Jochimmoon, and Hyangyakjipseongbang. I realized that the images of something ‘Korean’ can be expressed either as cool or warm.” Kim Ji-hyun, Stylist

2006년

한국의 보물을 찾아서
In Search of Korean Treasures



“한국의 보물을 직접 촬영해야 했어요.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한국적인 느낌의 소품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지만, 진짜 보물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없었죠. 보물은 그 스스로 분위기를 압도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 이명희

“This year, we had to capture the treasures of Korea. I have worked with traditional Korean accessories, but I have never worked with the real treasures. The treasures were dominating in and of themselves.”

Lee Myung-hee, Stylist

2008년

전통미감의 현대적 해석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Aesthetics



“설화수와의 작업은 한마디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를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여 진정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스타일리스트 이정화

“I remember that my work with Sulwhasoo was arduous. I had to bring the ‘real things,’ not just the reproductions of Korean accessories. I believe these efforts behind the scenes were able to complete the brand image with authenticity.” Lee Jung-hwa, Stylist

설화수 매거진은 우리 전통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메시지에 주목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2009년
전통미감의
현대적 해석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Aesthetics



“한국적인 것은 ‘오래되고 뒤쳐져 있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스타일리스트 서영희와의 작업을 통해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모던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자 했어요.” 포토그래퍼 김정환

“There are people who think anything Korean is either ‘old and outdated’ or ‘powerful.’ I worked with Stylist Seo Young-hee to try to express the powerful, masculine image with modern and clean characters.”

Kim Jung-han, Photographer

2010년
오브제로 보는
선조의 정신
Ancestral
Spirits
in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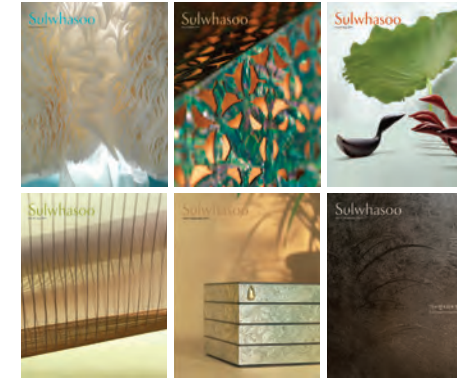


“한국적인 미니멀한 감각은 간결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져요. 서양의 것과 조화시킬 때는 한국적인 맛을 더 강조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고유의 색 조합이 많고 다양해서 그 조합을 찾는 시도도 많이 했죠.”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The minimal sentimentality of Korea is simple yet warm. I tried to emphasize the Korean charm when I combined it with something from the West. I also tried to look for as many combinations as I could.”

Seo Young-hee, Stylist

2011년
설화문화전
작품
The Artworks
of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설화문화전 작품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어요. 전통공예품의 디테일을 클로즈업하여 공예품의 색다른 면을 보여주도록 노력했던 시도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작업이에요.” 포토그래퍼 구본창

“I captured the pieces from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It i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because I captured in close detail traditional craft pieces that are not easy to find around us to exhibit their unique aspects.”

Goo Bon-chang, Photographer

2013년
현대작가의
전통공예품 소개
Introducing
the Traditional
Craft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한국적인 작품들이 가진 세련된 맛을 최대한으로 부각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전통을 고정관념에 가두기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열어놓고 조화를 시도해보는 것, 의미있죠.”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The challenge was to unravel the sophisticated beauty of Korean pieces as much as possible. There is a fixed concept of ‘what is Korean.’ It was meaningful to open up the tradition to the new era so as to attempt new combinations.”

Choi Seo-yoon, Stylist

2012년
설화문화전
작품
The Artworks
of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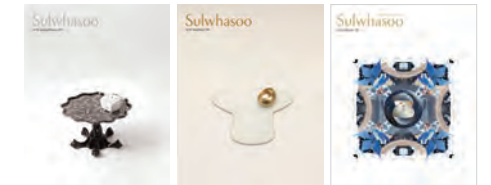


“설화문화전 작품을 좀 더 포근한 감성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맛을 담으려고 했죠. 이미지를 상상하며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는 것도 전통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한 방법이에요.” 포토그래퍼 구본창

“I tried to express the works from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rough a cozier sentimentality. I tried to capture the humble yet elegant charm of everyday accessories, such as Norigae and dishes. There is no definite image.”

Goo Bon-chang, Photographer

2014년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
The harmony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우리 문화의 ‘모던함’을 이끌어내고 앵글에 담는 것이 임무였죠. 한국적인 것은 간결함에서 나오는 멋스러움이에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매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만끽한 작업이었어요.” 포토그래퍼 이종근

“My job was to bring out and capture the ‘modernity’ of Korean culture, Korean modernity expresses beauty from simplicity. It was an interesting job, where I showed everyone the charm that is more than words can say.”

Lee Jong-keun, Photographer

Best Column 10

과거로의 아름다운 초대

에디터 김지선

우리의 옛 문화가 지닌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성을 넣어 세련된 전통문화를 탄생시키고자 발행한 설화수 매거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 현대와의 조우를 위해 애쓴 설화수 매거진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았다.



표지 이야기 / 2009년 11월

Cover Story, November 2009

한국 전통문화 색으로 꼽는 '백색'을 주제로 한국적인 백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여백의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여백은 '무'가 아닌 '소색'이며 그 어떤 강렬한 색이 지닐 수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It expressed the beauty of Korean white, which is the signature color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ch values the beauty of negative space, negative space is not colorless, but 'natural white,' which exhibits the stability not achieved by any intense color.



六白, 여섯 가지 백색 / 2006년 3월

The Six Whites, March 2006

백색의 다양한 색감을 종이, 실, 그릇, 문, 빛, 꽃으로 보여주었다. 질감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백색의 매력이 선보였다.

It expressed the various textures of white through paper, yarn, a dish, a door, light, and a flower. Each texture and shape exhibited the unique charm of white.



음식 속에 일 년 열두달이 있네 / 2006년 9월

There Are 12 Months in Food, September 2006

절기가 바뀐 것을 미감을 통해서도 누렸던 옛 선조들. 진달래, 도미, 국화 등 계절 음식재료로 밥상에 계절을 차린 지혜로운 식문화를 볼 수 있었다.

Our Korean ancestors enjoyed the changes in the seasons through their sense of taste. They used seasonal ingredients, such as Korean rosebay, snapper, chrysanthemums, to bring the season onto their tables.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부터 날아온 보자기 / 2007년 5월

The Cloth from the Quiet Land of the Morning, May 2007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박물관 등 그레이 빛 석조 건물 한쪽에 보자기로 싼 물건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빛깔과 자태가 화려하게 눈에 띄었다.

When the object wrapped with the cloth was placed next to the gray stone buildings, such as Duomo and Uffizi Gallery, it exhibited a captivating variation of beautiful lights and qualities.



우리 시대의 화백 서세복과 김병중 / 2008년 3월

Seo Se Bok and Kim Byung Jong, The Painters of Our Time, March 2008

한국화를 그리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눈으로 보는 그림의 수준을 넘어 한국문화를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Korean painting instructor and his pupil taught us how to see Korean culture with the heart, beyond the eyes.



여인의 마음에 스민 단장 / 2011년 5월
The Ornament in the Heart of a Woman, May 2011

옛 여인은 무엇으로 외모를 단장했을까.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유물인 화장합, 백자항, 경대, 노리게를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정갈하게 놓여 있는 도구들을 보며 옛 여인들의 단아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What did traditional women use to adorn themselves? It captured the traditional makeup box, white porcelain jar, mirror, and Norigae from the collections of the Amorepacific Art Gallery. The neatly organized tools represented the elegance of traditional women.

여인의 마음에 스민 단장 / 2011년 5월
The Ornament in the Heart of a Woman, May 2011

옛 여인은 무엇으로 외모를 단장했을까.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유물인 화장합, 백자항, 경대, 노리게를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정갈하게 놓여 있는 도구들을 보며 옛 여인들의 단아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What did traditional women use to adorn themselves? It captured the traditional makeup box, white porcelain jar, mirror, and Norigae from the collections of the Amorepacific Art Gallery. The neatly organized tools represented the elegance of traditional women.



봄을 알리는 우리네 들꽃 / 2010년 3월
The Wild Flowers of Spring, March 2010

우리의 들꽃으로 봄이 왔음을 보여주었다. 서양의 화려한 꽃에 묻혀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들꽃의 잔잔한 아름다움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The wild flowers of Korea were captured to show that spring has come. The humble beauty of wild flower which can be easily overlooked due to the colorful flowers of the West, has been expressed in illustrations.



골무 / 2012년 9월
Thimble, September 2012

여인들이 사용하던 작은 것에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가족의 옷을 손수 만들었던 옛 여인의 빚깎 고운 골무 구경이 재미있다.

Korean beauty was found in the small things used by women in the past. It was fun to look at the colorful thimbles of the women who used to make the wardrobes for their family all by hand.



한지의 아름다움 / 2012년 9월
The Beauty of Korean Paper, September 2012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이 한지. 한복, 가구, 조명의 주재료로 쓰이고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넘나들 수 있음을 증명하며 한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Korean paper is the traditional paper of Korea. It exhibited its perfect application to Hanbok, furniture, and lighting, and proved its endless possibilities.



조선의 궁, 그 문으로 들어서다 / 2013년 1월
Stepping into the gate of the palace of Joseon, January 2013

경운궁(덕수궁), 경복궁,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왕과 외국 사신, 조정 대신 등이 드나들던 '통로'의 역할과 함께 '계절'의 통로이기도 했다.

The gates served as passageways for the king, foreign envoy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come in and out. The day and night of our palace 'gates,' which were also passageways of 'season,' have been captured.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5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 당첨자 발표** 2014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는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서순례 대구 동구 신서동
- 문은미 인천 부평구 산곡4동
- 류경희 전북 익산시 배산로
- 정향숙 충남 예산군
- 이향 광주 서구 중봉대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권(5명)

- 허윤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 신진균 인천 남구 송의2동
- 김경선 서울 서초구 반포2동
- 정행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 김유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